



코스피 2274.49 (-35.08)	코스닥 789.00 (-5.99)
금리 (국고채 3년) 2.07 (+0.05)	환율 (USD-달러) 1129.90 (+10.70)(4일)



[산업]
초광각·망원 등
5개 카메라 탑재
'LG V40 씽큐' 공개
06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최태원 SK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 청주에 낸드 전용공장 M15준공

20조 투자, 22만명 고용 반도체 상생 날개 '활짝'

축구장 5배규모 '클린룸'서
낸드플래시 중점적 생산

文, 끊임없는 혁신에 격려
"정부도 지속지원 나설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
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공장 준
공식에 참석, 산업의 새 역사를 써
달라고 복돋았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는 새 반도체 공장 M15를
완공하고 4일 충북 청주에서 준공
식을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이 공장에 향후
20조원 가량을 쏟아부어 반도체
생산을 위한 메카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관련기사 3·5면>

이날 모습을 드러낸 SK하이닉
스 M15 공장은 축구장 8개 크기
인 6만㎡ 규모에 달한다. 1만8000
평에 길이 339m·폭 172m·높이
71m 상당이며, 복층으로 구성된
클린룸에서 낸드플래시를 중점적
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클린룸 크
기만 축구장 5배 규모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탄생
한 SK하이닉스는 어려움을 기회
로 반전시킨 불굴의 기업으로, D
램 생산 세계 2위, 낸드플래시 생
산 세계 5위의 세계 3대 반도체 기
업으로 우뚝 섰다"며 "1000만권의
책을 담아낼 수 있는 낸드플래시
는 빅데이터의 핵심 두뇌로, 청주
공장 준공으로 낸드플래시 경쟁
력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투자와 끊임
없는 기술혁신으로 최고의 반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대형 유리문을 통해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체 회사를 일구어 낸 SK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은 한국경제의 엔진으로, 올해 상
반기에만 612억 불을 수출해 역대
초고 수준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중국·미국 등 경쟁국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세계 최고 반
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힘과 지
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인
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자
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과 신
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선제 투
자·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
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
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
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
량과 SK하이닉스의 기술이 만나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공장은 올해 말까지 1000
명을 비롯해 2020년까지 2100명

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으로 알
려졌다. 또 협력업체 신규고용 인
원도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된다.

최태원 회장은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
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에 큰 빛을 쬐왔
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
명의 핵심인 한국 반도체 경쟁력
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다"
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추석 직전 열린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함께 다
녀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장 준
공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최 회장과는 약 보름만에 다시 만
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한 후 대기업 생산공장을 찾아 대
기업 총수를 만난 것은 중국 충칭
현대자동차 공장(지난해 12월),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올해 2
월),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공장
(올해 7월)에 이어 네번째다.

/김승호·안병도 기자
bada@metroseoul.co.kr

노트북·폰 맡기고 '급전' 전당포에 목 맨 청년들

어스름한 저녁. 습한 공기가
엄습하는 지하실을 내려가면 보
이는 쇠창살. 푹푹하고 두드리
면 드르륵하며 열리는 창문너머
로 매섭게 훑어보는 눈빛. 영화
'아저씨' 속 전당포의 모습이다.
모두 가보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전당포의 분위기. 그런
전당포가 최근 변하고 있다.

◆전당포의 변신

지난 3일 저녁. 예약을 하고
찾은 서울 마포구의 한 전당포는
하얀 벽지에 LED조명까지 더
해 눈이 부셨다. 한쪽 벽면에는
유리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선반마다 명품백, 지갑, 시계 등
이 전시되어 있었다. 패미집 클
래식 음악까지 흐르자 백화점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요즘 대학생들이 노트북이나
카메라 많이 가지고 오시죠."

2015년식 노트북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물음에 직원이 답했
다. 대출은 얼마나 되냐고 묻자
중고시세를 검색하던 직원은
"대출은 중고시세에서 40~80%
를 해준다"며 "현재 노트북 중고
가격이 30만원이어서 완전매매
는 25만원, 불완전 매매(상환이
미뤄진 경우 경매물품으로 파는
것) 22만원, 담보로 하고 빌리기
만 하는 경우는 15만원을 대출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참 노트북의 성능을
확인한 직원은 계약서를 가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당포 간판. /사유리 기자

소액대출 위해 전당포 이용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없이
스마트폰·컴퓨터·카메라 등
저당 물품만 있으면 대출

왔다.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 금
리인 연 24%. 10만원을 대출했
을 경우 월 2%, 2000원의 이자
가 붙는 셈이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자 직원은 카메라로 노트
북을 찍은 후 계약서 1부를 복
사해 주면서 "작성이 끝났으니
20분쯤 뒤에 계약서에 적혀있
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해 주
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달 뒤 돈을 갚
을 때는 하루 전날 전화해 이자
와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계좌
로 이체해주면 된다"며 "상환
일을 미룰 경우 그 다음달부터
1부(원금의 10%)와 이자를 함
께 내야 한다"고 했다.

◆청년층 겨냥한 전당포 인기
최근 취업 및 아르바이트 자

리가 부족해지면서 정보기술(I
T) 기기를 맡기고 소액을 대출
할 수 있는 전당포를 찾는 청년
층이 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과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을
맡기고 10만~50만원씩 소액대
출을 받는 것.

전당포 관계자는 "옛 전당포
는 사라지는 추세지만 IT기기를
전문적으로 받아 대출해 주
는 IT전당포는 늘어나고 있다"
며 "최근에는 PC로도 감정이
가능해지면서 20~40대 손님이
증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전당포에 청년층의
발길이 잦은 이유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이
손꼽힌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
이 불분명할 경우 까다로운 절
차를 밟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달리 저당 물품만 있다면 빠르
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면에 계속>
/사유리 기자 yul115@

"금융불균형 누증, 점진적 해소해야"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필요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 누증을 강조하며 연내 금
리 인상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경제동
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득증
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
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난 1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
고 과제는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
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 누증은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뜻
한다. 저금리 부작용을 언급했다
는 점에서 이 총재가 금리 인상 필
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글로벌 금융위
기가 발생한 지 만 10년째 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라며 "세계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났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부채, 자산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반세계화 정서와 포퓰리즘 확산 등을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반세계화 정서에서 파생된 글로벌 통상갈등 확대, 위기 대응 수단이었다던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지금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업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난해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심리를 제고함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며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등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9@

호텔신라, 매출 5조·해외 1조 ‘마의 벽’ 넘나

중 하이공·호캉스족 인기 맞물려 한한령 완화에 면세점·호텔 호황 상반기 매출 2.3조·영업익 1137억 순이익 843억... 작년 대비 3.3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호텔신라가 올해 중국 보따리상(하이공)과 호캉스(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업계는 호텔신라가 연 매출 5조원 시대를 열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올해 상반기 매출 2조3004억원, 영업이익 1137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843억원으로 작년 연간의 3.3배에 달했다.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이 있는 3분기에 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관측되면서, 올해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호텔신라가 이 같은 매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매출 4조원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4조115억원, 영업이익은 731억원이다.

일각에서는 호텔신라의 올해 연간 매출이 5조원대를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호텔신라 연간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매출	14,524	17,984	22,196	22,970	29,090	32,517	37,153	40,115	23,004
영업이익	780	975	1,293	866	1,390	772	790	731	1,137
당기순이익	497	561	1,010	108	735	185	278	253	843
시가총액(연말기준)	10,900	15,100	17,300	26,100	35,900	30,300	18,900	33,300	42,300
주식증가(연말기준, 원)	27,750	38,500	43,950	66,500	91,400	77,300	48,150	84,900	102,500(10월2일 증가기준)

[자료=연말뉴스]

전망했다.

호텔신라의 매출 90%는 면세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호텔과 레저사업 부로 나뉘는데, 올해는 사드(THAAD·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보따리상이 몰리는 등 면세 수요가 증가했고, 수수료율 인하 분위기, 호캉스 인기 등이 맞물리면서 면세점과 호텔 사업 모두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드로 인한 한한령이 완화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호텔신라의 해외 매출도 업계 최초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텔신라는 국내 면세점 업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이상 향수·화장품 카테고리 전체), 마카오 공항(전 품목·합자) 등 공항 면세점과 태국 푸켓, 일본 도쿄(이상 합자)에 시내 면세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전략은 이부진 사장이 경영에 뛰어든 지난 201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지난 8년간 호텔신라의 매출은 2010년 대비 2.7배, 주가는 2010년 말 2만7750원에서 2일 증가 기준 10만2500원으로 3.7배 뛰면서 외형 및 실적 성장세를 이뤘다는 평가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매년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이어 3, 4분기에도 큰 변화가 없는 한 실적 증가세를 보여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보험설계사 정보공개... 소비자 피해 막는다

금융위 'e-클린 보험시스템' 구축 내년 하반기 상용화 '알권리 증진'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General Agency)에 소속된 설계사가 판매한 보험 계약에서 각종 불완전판매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모집설계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 1'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보험설계사의 이력은 담지않는 등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따른다.

금융위는 e-클린 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의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계약 유지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급격히 성장한 GA는 지난 6월 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명보험 기준 GA의 불완전판매율은 0.63%로 보험사 전속설계사(0.29%)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당국은 GA의 불완전판매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성명,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하다. 단,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험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500인 이상 대형GA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인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소속 설계사 수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GA가 이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속 미이행시 스트라이크아웃(Strike Out)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공시한다.

특히 당국은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했다. 일명 철새 설계사는 소속사 변경 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권유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또한 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해 자기정보 관리 기회 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GA의 불완전판매의 싹을 자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제공에 동의해도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정보제공에 미 동의한 설계사는 '제거 거부'로 기재 불완전판매율을 청약서 기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일단 설계사 개인이 정보제공하는 것에 미 동의해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적을 것 같다”며 “특히 설계사들은 입사 초기에 지인영업으로 많은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신규 설계사들의 정보는 집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지는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가졌다. (왼쪽 네번째부터)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대업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 민병덕 재단 공동이사장, 김태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행연합회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이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을 기념하는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산업 노사 2000억 공익재단 설립

임금인상분 출연 등 연내 1000억 조성 금융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2000억원대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재단 설립을 위해 노측은 올해 임금인상분 2.6% 중 0.6%포인트를 재단 기금으로 출연하고 사측도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2012년, 2015년, 지난해 공동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더해 전체 기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단위의 노사공동 재단은 이번 공익재단이 최초라고 금융산업 노사는 전했다.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한편, 공익재단 이사는 노측과 사측 각 5명씩 10명으로 구성됐다. 초대대표이사장엔 조대업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유재희 기자

외국인 직접투자 상승세... 4년연속 200억弗 달성 가시화

산업부, 1~3분기 신고액 41% 증가

올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2억달러로 작년 대비 41.4%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31.9% 증가한 11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투자가 작년 대비 63.1% 증가한 51억3000만 달러(이하 신고 기준)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26.7%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운송용 기계와 전기·전자,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 유통, 레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은 작년 대비 41.0% 증가한 40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21.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화공, 운송용 기계, 기계장비·의료정밀,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 지역개발·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유통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중국은 29.2% 증가한 2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투자의 12.4%를 차지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 서비스업에서는 지역개발·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운수·창고에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외국인투자의 5.0%를 차지하는 일본은 화공, 전기·전자 분야에서 과잉설비 우려로 투자가 축소되면서 작년 대비 42.6% 감소한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운송용기계, 화공,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작년 대비 101.7% 증가한 8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과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활발한 게 특징이다.

[세종=최승용 기자 grandtrust@

“대부업체 등록증 확인·계약서 보관해야”

>> 1면 '전당포 가는 청춘들'서 계속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거래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 지난해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긴 대학생 김모(23)씨는 “추석과 만기일이 겹쳐 늦게 전당포를 찾았는데 경매에 넘어가 빌린 돈에 20만원을 더 내고 카메라를 찾았다”며 “휴일을 감안해 주거나 미리 연락을 줄줄 알았다”고 푸념했다.

특히 대부업 등록확인 없이 전당포에서 물품을 맡기고 대출했다간 자칫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거나, 한순간 전

당포가 사라져 물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당포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다수의 전당포가 대부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출 전에 꼭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이자율(연 24%)을 지키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전당포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대출받기 전 직원을 통해 대부업체 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국성장률 전망치 0.3%P 내린 S&P “이유 있네”

꿈틀 금리·뛰는 물가·나는 유가... 新 3高 몰려온다

올해 ‘유가 100달러’ 진입 가능성
금리 지속 상승에 소비심리 위축

“한국 경제의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이 같은 우려도 함께 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3.0%에서 2.7%로 하향)내렸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영화속 얘기 처럼 한국경제가 거센 폭풍의 한 가운데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갈수록 격화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는 70달러 대로 뛰면서 한국 등 신흥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 묶어놨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다.

유가와 금리,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신(新) 3고(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먹구름 수준에서 태풍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생산력 10년 전 수준으로 하락...100달러의 공포 ↑

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원유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

(단위: %)

국제 유가 시나리오	GDP	GNI	소비	투자	수출	CPI
60\$/bbl	-0.22	-0.29	-0.19	-1.76	0.25	0.14
70\$/bbl	-0.59	-0.77	-0.50	-4.66	0.67	0.37
80\$/bbl	-0.96	-1.25	-0.81	-7.56	1.08	0.61

주1)추정 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참고.
주2) 분기별 평균 WTI 유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유가상승 4분기 후의 영향.
주3) 2017년 4분기(10월 2일~11월 28일) 평균 WTI 유가(53.9\$/bbl) 대비 시나리오별 상승률을 이용하여 산출.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18달러(1.6%) 오른 76.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종가 기준으로 약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뒤 이를 만에 고점을 갈아치운 셈이다.

올해 안에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ANZ은행은 1일 “시장은 유가 100달러 돌파에 온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드리스콜 JTD에너지 시큐리티 분석가도 “필연적이지는 않더라도 유가 100달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여유생산능력이 2007~2008년 유가 대급등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계 수요는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치솟는 국제유가는 한국경제에 큰 짐이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원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생산활동과

투자는 위축된다. 실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1년~2014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률은 7.5%에서 5.1%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한다.

수출도 판매 단가 상승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료

비, 난방비 등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가 쉽게 줄일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지출 여력 감소로 이어져 최근에서야 겨우 나타나고 있는 소비 회복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리·물가도 ↑...지갑 열 여유가 없어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올린 후 9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주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1일 자료 고시한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금리는 3주 전보다 0.10~0.12%포인트 올라 최고 4% 중반대다. 8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1.89%로 2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으며 지난해 8월(1.59%) 이후 12개월 연속 올랐다.

가산금리도 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주요 대출 금리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쓸 돈이 줄어든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장바구니 물가는 걱정 수준이다. 작년 7월 80kg 한 가마에 12만85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1년 만에 17만7052원까지 올랐다. 서울택시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기본요금 4000원 인상을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는 2%대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대신증권은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 경제적 파급 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원가 변동 요인에도 관리품목의 가격 조정을 지나치게 억제해 인상 압력이 점점 쌓이면 추후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소차 등 신산업 투자로 11만개 일자리 창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의결
125조원 투자... 민간 프로젝트 지원

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일자리위가 기업들로부터 취합한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141개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일자리위의 복안이다.

이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개수로,

파급 효과로 인한 간접고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일자리위의 설명이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48건(34.0%)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되는 것은 98건(69.5%)이다. 내년까지 착공되는 프로젝트도 105건(74.5%)에 달한다.

일자리위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산업 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 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적기에 투자 실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에서는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평화 예술 헤이리

2018 10.6-10.14

개막식 | 2018. 10. 6(토) 오후 4시 30분
장 소 | 헤이리에술마을 갈대광장

시각예술제

- 박물관 & 미술관
- 갤러리
- Open studio in 헤이리
- Artist in 헤이리 (헤이리 작가전)
- 10회 아트로드77 2018
 - Flow-Scape 두 개의 강은 함께 흐른다
 - 77 아트쉐어링
- (사)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 전시회

공연예술제

- 파주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 타악기 공연 (호연)
- K-Pop 그룹 공연
 - 오마이जू, 뉴타운보이즈, 데스티니
- 생명사랑 영화상영
 - 조은성 <나는 길고양이로소이다>
 - 황윤 <잠식가족의 딜레마>
- 헤이리 필JAZZ
 - 필로멜라, 장혁재밴드
- 헤이리 추억 속으로
 - 양키즈, 데블스, 조태복의 덕혜밀리
- 프린지 공연

참여예술제

- 우산에 그리는 평화
- 그리고... 앉아요
- 소원 열매 해피트리
- 2018 미술주간 기획 프로그램 아트로드77, 칼라에 물들다
 - 관계의 법상
 - 전시투어
 - 소망, 평화 나무숲대만들기
 - 헤이리건축투어
 - 전통부주 만들기
 - 소망평화목판화만들기 & 작가와의 만남

www.heyri.net
*파주시민 활인 (리플릿 기재공간)

“퍼스트펍권 최대 50억 지원…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신시장 도전 기업)

금융 다이제스트

KB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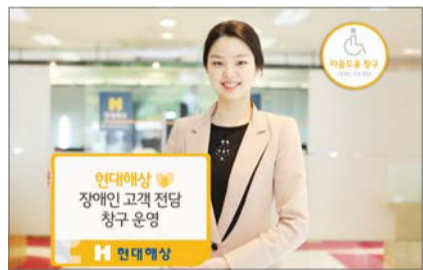
리브로 간편 송금하고 ‘쇼미더머니’ 방청가자

KB국민은행은 다음달 4일까지 ‘리브(Liiv) X 쇼미더머니 777’ 이벤트를 실시한다. 간편뱅킹 앱 리브(Liiv)가 엠넷(Mnet)의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하는 것을 기념한 이벤트다.

이번 이벤트는 리브 가입고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편송금인 ‘리브머니보내기’로 수취인에 상관없이 7원을 송금하면 자동음모 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음모도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00명)에게는 쇼미더머니777 방청권을 제공하고, 2등(1000명)에게는 현금 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나 리브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해상

장애인고객 전용 창구 개설

현대해상은 장애인 고객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고객 지원팀 12개소에 장애인 고객 전담 창구인 ‘마음 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마음 도움 창구’에는 장애인 고객이 방문 시 기다리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숙지한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 장애인 고객은 번호표 대신 ‘마음도움 카드’에 본인의 장애 유형과 원하는 업무를 체크해 전담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장애인 고객이 더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에 장애인 전용 번호를 도입했다. 청각·언어 장애인 고객을 위한 문자상담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수화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씨티은행

소셜벤처 성장 1억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4일 서울시 중구다동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소셜벤처 정책연구 후원’ 협약을 갖고, 씨티재단 후원금 1억1000만원(미화 10만달러)을 전달했다.

사회연대은행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무담보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씨티은행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내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윤대희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고용창출·기여 기업에 4조 투입 미래발전위원회·자문단 등 구성 ‘中企 지원의 ‘게임체인저’ 될 것’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 중심의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중요한 역할)가 되겠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념 ‘2018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여건을 겪고 있는 현장의 중소기업인을 위해 신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윤 이사장은 “신보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폐지 등 어려운 여건을 맞이했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며 “신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보는 올 연말까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 1월부터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 미래와 혁신, 그리고 시장과 공익을 주요 가치로 두고 기업 혁신 생태계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신용보증기금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용창출·유지 기업에 4조원을 공급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점정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내부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신보 미래발전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특히 이날 윤 이사장은 신보가 직접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채 설립한 지 10년 이내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윤 이사장은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스케일업(Scale-up)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보가 도입한 스타트업 네스트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으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엑셀러레이팅(창업 노하우 전수)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 4단계 융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8월 말 현재 134개 기업에 총 469억원의 보증을 지원했으며 그중 34개 기업이 131억원의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신보는 스타트업 네스트를 유망 스타트업의 필수코스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017년 100개, 2018년 160개 등 총 260개의 기업을 선별해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200개 기

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보는 창업(스타트업)을 넘어 도약(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담 지원조직인 ‘스타트업지점’도 현재 8개에서 서울 마포와 울산에 한 곳씩 신설해 10개로 확대한다.

미래 신시장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퍼스트펍권기업’과 4차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4.0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 3년 경과 후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새롭게 도입하는 스케일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구개발과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집중돼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비즈니스모델이 안착된 혁신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특성별로 다양한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담지원조직인 ‘스타트업지점’도 마포와 울산 지점을 신설, 8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한편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 늘린 45조5000억원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보증은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2500억원도 공급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회계법인 자회사, 감사법인 컨설팅 금지”

금감원 감사인 독립성 점검 강화

회계법인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감사기업에 컨설팅용역을 제공해도 이해상충으로 법에 위반된다.

또 올해 5월부터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감사기업의 자회사에 비감사용역을 해주는 것도 금지다. 금감원은 4일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이해상충 관련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별도의 컨설팅 법인 B를 만들고, 외부감사업

무를 하고 있는 C 회사에 용역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A회계법인의 대표는 컨설팅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금감원은 외관상으로는 컨설팅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A회계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독립성 적용대상 고객회사의 범위가

늘어나고 금지용역도 추가되면서 더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정보 체제 구축 등 용역발주가 많은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회사의 경우 80% 이상이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다.

또 법에서 열거된 금지업무가 아니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의 동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관리감리 등을 통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베트남 디지털뱅킹 강화

FPT그룹과 IT 파트너십 업무협약 ICT·핀테크 솔루션 개발 협업 등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점에서 베트남 FPT그룹과 디지털 뱅킹 등 금융 IT 부문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FPT 그룹은 1988년에 설립된 베트남 1위 ICT(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현재 FPT소프트웨어, FPT텔레콤 등 8개의 자회사와 임직원 3만2000명 규모로 세계 21개국에서 ICT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를 디지털 뱅킹 부문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신한은행은 FPT그룹에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와 선진화된 디지털 뱅킹 시스템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FPT그룹은 ICT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한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위성호 신한은행장(왼쪽 네번째)과 베트남 FPT그룹 프영 차 빈 회장(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FPT그룹은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과 통신, 전자상거래, 뱅킹, 지급결제 분야에서 활발한 협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

업”이라며 “앞으로 FPT그룹과 ICT 및 핀테크 솔루션 개발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디지털 리딩뱅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신동현 광주시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동반성장 협력 MOU

IBK기업은행은 지난 2일 광주시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은행에 30억원을 무이자 예탁하고,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추천한다. 기업은행은 무이자 예탁금을 채원으로 해당 기업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6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대출금리 1.25%포인트를 자동 감면받고, 거래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포인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력이 광주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청주서 '낸드 초격차' 승부수... 71兆 생산유발

(2023년까지)

신규 반도체공장 M15 준공식

文 대통령 “정부, 지속적 지원할 것” AI·5G 등 수요 차질없이 대응 준비

SK하이닉스가 10월 4일 충북 청주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 M15 준공식을 열었다.

‘함께 여는 미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시중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협력사 및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주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넓은 의미의 인프라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기업자산을 공유인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

프라로 전환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과 지식 인프라를 공유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내외빈

/SK하이닉스

M15의 가동을 알리는 첫 웨이퍼 투입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사내 경영진 외에도, SK하이닉스 20대 직원 2명과 협력사 및 지역 소상공인 등 사외 인사 4명이 동참했다.

행사에 참가한 협력사 TEMC의 유원양(42) 대표는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좋은 기회가 열

렸고, 향후에도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으며 청주시업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 윤기순(55) 씨는 “M15 공장 가동으로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새 공장에서 일하게 될 SK하이닉스 신입사원 50여명도 행사에 참석해 미래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그 가운데

데 신입 여성 엔지니어 유경아씨는 “제일 잘나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격려해줬다”며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여성엔지니어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2023년까지 M15가 일으킬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로 21만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0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 25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예상했다. 실제 이번 M15는 건설 과정에 16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연인원 240만 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SK하이닉스측은 “빅데이터, AI, 5G,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미세공정 기술 적용, 3D 낸드 전환 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과거처럼 공급이 대폭 증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고객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도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사랑 인수 6년만에 주력사로 '우뚝'

SK하이닉스가 4일 충북 청주 공장에서 개최한 'M15' 생산라인 준공식에 최태원 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최 회장의 '하이닉스 사랑'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1년 약 3조 4000억원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해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꿨다.

에너지·화학·통신 중심이던 그룹 구조에 반도체를 추가해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재계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듬해인 2012년 SK하이닉스는 2천 273억원의 영업이익자를 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 등에 힘입어 눈부신 실적 성장을 이루면서 명실상부한 그룹 주력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룹 계열사 가운데 압도적인 실적 1위를 기록했고, 그룹 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대표 계열사로 우뚝 섰다.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양 결단'을 내린 최 회장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최고의 효자'가 된 셈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뿌듯함을 표시했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실적을 기반으로 그룹 내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상과 역할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말 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애정'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고경영자(CEO)인 박성욱 부회장의 경우 고령에 무려 5년째 CEO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한때 교체설도 있었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유임되면서 6년째 CEO직을 수행하게 됐다.

사장 승진자가 3명, 전무 승진자가 14명에 신입 상무 27명이 배출되면서 모두 41명이 승격되며 '승진 잔치'를 벌였다.

최 회장이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부쩍 자주 찾는 데다 SK그룹 차원의 행사가 SK하이닉스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것도 다른 계열사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해 4월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인수전에서 SK하이닉스가 경쟁업체들에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직접 일본을 찾아 인수전을 진두지휘했던 최 회장은 같은 해 9월에도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방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M14 공장 준공식에 이어 오늘 M15 준공식에도 현직 대통령이 잇따라 참석했다”면서 “최 회장 으로서는 자신의 결단으로 인수한 기업이 이처럼 성장한 데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기자

www.pdna.co.kr

INTENSIVE DNA CREAM
Protects the barrier of sensitive skins and helps revitalizing it by applying enriched nutritive cream.

P+DNA
50g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P+DNA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관리사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르는 크림으로 만나보세요.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피부 재생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베타/아세트/지아씨/백년초/해초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물광피부도 동안관리도 크림 하나로
눈가,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피디엔에이 크림으로 관리하세요. 풍부한 영양감, 짙은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줍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물광 피부, 동안 관리 효과를 경험하세요.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원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초광각·망원 등 5개의 눈... 더 생생하고 깨끗해졌다

(펜타 카메라)

LG전자 'LG V40 씽큐' 공개

소비자 요구 철저 분석·반영
6.4인치 올레드 풀비전 적용
QHD+ 해상도로 컬러 생동감 ↑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 지원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펜타(5개) 카메라를 장착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V40 ThinQ(씽큐)'를 4일 공개했다.

V40 씽큐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5개의 카메라다. 카메라의 기본 성능을 높이고 다양한 화각으로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환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장은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 V40 씽큐 개발팀은 최근 6개월간 수많은 온라인 댓글을 분석하고 사용자를 직접 만나 LG 스마트폰에 대한 목소리를 철저히 분석했다"며 "이들 제품에 반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후면에 표준, 초광각, 망원 등 3개의 렌즈를 탑재했다. 사용자가 움직일 필요 없



황정환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사업본부장

이 다양한 화각과 줌을 이용해 인물과 배경에 맞는 사진들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촬영 전 서로 다른 3개의 카메라로 비추는 장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프리뷰', 셔터 한 번이면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한 연속 사진과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트리플 샷' 등 3개의 카메라를 조합한 쉽고 재미있는 기능도



LG전자가 4일 오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전략 스마트폰 LG V40 ThinQ를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포함됐다.

왜곡을 줄인 107도 화각의 초광각 렌즈는 1600만 화소의 고해상도를 지원해 인물뿐 아니라 넓은 풍경도 깨끗하게 담는 것도 가능하다. 망원 렌즈는 멀리서도 원하는 피사체를 화질 손실 없이 담아내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연출한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표준 렌즈와 500만 화소 광각 렌즈 2개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서로 다른 렌즈가 인물과 배경을 구분해내기 때문에 배경은 흐리게 하고 인물만 강조하는 아웃포커스 기능이 한결 깔끔해졌다.

카메라의 화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우선 후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의 픽셀은 전작인 LG V30 씽큐의 1μm(마이크로미터) 1.4μm로 약 40% 커졌다. 센서 픽셀은 이미지 센서를 이루는 최소 단위로, 렌즈를 통과한 빛을 센서 픽셀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다. 센서 픽셀이 받아들인 빛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 또한 0.38인치로, 전작 대비 18% 이상 키웠다.

조리가 깊은 스마트폰 중 가장 낮은 수준인 F1.5를 구현해 보다 많은 빛을 받아들여 어두운 곳에서 깨끗한 사진을 찍도록 한다.

카메라 외에도 V40 씽큐는 6.4인치 올레드 풀비전을 적용했다. 하단 베젤(테두리)을 5.7mm로 줄이고 전면 상하좌우 베젤의 두께를 갈게 했다. 또한 QHD+(3120×1440) 해상도로 약 450만개의 화소가 생생한 화질을 구현한다. 새로운 화

질 엔진을 적용해 컬러의 생동감을 강조했다.

하이파이 쿼드 DAC 기반의 고해상도 오디오는 영국 명품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과의 협업으로 품격을 높였다. 하이파이 쿼드 DAC은 음왜곡율을 수십만 분의 일 수준으로 줄여 원음에 가까운 깨끗한 소리를 구현한다. 여기에 메리디안의 음질 튜닝으로 최적의 밸런스를 갖췄다.

기존 스마트폰 대비 저음이 두 배 이상 풍부한 붐박스 스피커 기능도 향상됐다. 제품 상단 수신부 역할을 하는 리시버를 스피커처럼 활용해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한층 높였다.

LG전자는 4일부터 각 통신사 매장 수천 곳에 V40 씽큐의 진열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거점에 체험존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색상은 뉴플래티넘 그레이, 모로칸 블루, 카민 레드 등 3종으로 출시된다. 출시 날짜와 가격은 미정이다. 다만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작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LG V30(64GB)의 출고가가 94만9300원이었는데 이번 V40 씽큐는 카메라 렌즈가 2개나 더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구서용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넉넉한 공간에 뛰어난 연비 안전성 높여 '엄빠차'로 딱!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추석 연휴가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 시즌이 시작됐다.

가을 나들이에는 사람도 많이 탈 수 있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주목받는다. 이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차량 구매시 미니밴을 고민한다. 운전이 미숙한 엄마를 고려한다면 '엄빠차'로 미니밴을 구입하는 건 부담스럽다.

그러나 최근 만난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는 넓은 시야각과 뛰어난 연비를 갖추고 있어 '엄빠차'로 제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 C4 피카소는 국내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델이다. 올해 판매된 시트로엥의 35% 정도는 그랜드 C4 피카소가 책임졌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다. 유려한 유선형으로 완성된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과 유니크한 외모로 활기차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갖췄다. LED 주간등과 차체 바깥쪽으로 확장된 더블 쉼브론은 시트로엥만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며, 브랜드 특유의 패밀리룩을 완성한다.

실내 공간은 겉모습과 달리 넉넉하

다. 실제로도 공간성이 뛰어나지만 넓은 시야 덕분에 훨씬 넓어 보인다. 앞창이 앞으로 누운 덕분에 A필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쿼터 글래스를 집어 넣었다.

여의도를 출발해 충남 보령 무창포를 왕복 주행한 결과 주행성능은 만족스러웠다. 최고 출력 120마력과 30.6kg·m의 토크를 내는 1.6L 블루HDI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6단 자동변속기(EAT6)를 채택해 부드러운 출력 전달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조 기능도 대거 적용했다.

그랜드 C4 피카소는 유로 NCAP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탑승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 안전성을 대폭 향상했다. 특히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너무 깊게 개입하지 않아 안전하게 주행을 도왔다.

C4 피카소는 14.2km/L의 복합 공인 연비와 각각 13.2km/L와 15.6km/L에 이르는 도심 및 고속 연비를 갖추고 있지만 연비는 실제 주행에서 더 높게 나왔다. 시승한 결과 패밀리 밴 구매를 고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차다. 가격은 1.6L 디젤 3990만~4270만원, 2.0L 디젤 4990만원으로 착한 편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우전자, 멕시코서 'K-Pop 파티'

한류 문화체험 통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대우전자가 지난 9월 30일 멕시코 시티에서 'K-Pop 파티'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중심가인 레포르마 거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커버댄스 공연, 강남스타일 댄스 컨테스트,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서예 및 한복 체험 이벤트 등 한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전 9시부터 4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주최 측 예상의 5배가 넘는 1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멕시코 현지 한류 팬들이 좋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대기했다.

대우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멕시코

시장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했다. 대우전자와 대우위니아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마이크로 버블 세탁기, 더 클래식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대우전자 주요제품과 계열사인 대우위니아 스포워셔(포터블 자연가습청정기), 위니아 공기청정기 등 신제품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행사를 참석한 관람객에게는 모자, 핸드폰용 스마트 링을 제공했다. 제품 홍보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는 추천 이벤트를 통해 대우전자 전자레인지 30대, 대우위니아 스포워셔(포터블 자연가습청정기) 100대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지난 9월 30일 멕시코시티 레포르마 거리에서 진행된 대우전자 'K-Pop 파티'에서 K-Pop 커버댄스 공연을 지켜보는 관람객들. /대우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유럽 엔진시장 진출

伊 아르보스와 LOI 체결
6년간 G2엔진 2.7만대 공급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럽 농기계용 엔진 시장에 진출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이탈리아 트랙터 생산업체 아르보스(ARBOS)와 디젤 엔진 개발 및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유럽엔진인증 V' 배기규제를 충족하는 1.8~3.4L 급 G2엔진을 농기계용으로 개발해 2020년부터 6년간 아르보스에 2만7000여 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건설기계와 지게차 등에 쓰이는 친환경 고효율 제품인 G2 엔진을 판매해 왔다. 이번 LOI 체결을 통해 산업용뿐 아니라 농업용까지 유럽의 엔진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풀 라인업을 갖추며 사업 확장



아르보스그룹 선 양 회장과 두산인프라코어 유준호 엔진BG장, 아르보스 CEO 안드레아 베도스티(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유준호 두산인프라코어 엔진BG장(부사장)은 "북미와 유럽 소형 건설장비 시장 점유율 1위 밥캣과 세계 2위 지게차 업체인 독일의 키온 등에 이어 세계적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일류업체와 전략적 파트너를 맺음으로써 엔진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B '옥수수'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SK브로드밴드는 자사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에서 '2018 MLB(메이저리그 야구) 포스트시즌'을 5일부터 생중계한다고 4일 밝혔다.

옥수수 측은 "류현진 선수가 가을야구 진출이 달린 정규시즌 막바지에 예전 전성기 기량을 발휘하고 호투를 펼쳐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LA다저스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며 "류현진 선수의 4년만의 포스트시즌 엔트리 입성에 따른 MLB에 대한 높은 관심에 '2018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사 중 단독으로 'MLB 포스트시즌' 생중계를 제공한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앱)과 PC에서 회원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김민인 기자 silkni@



가족이든 개인이든, 데이터 무제한은 역시 U+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



가족끼리 데이터를 나눠 쓰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88

-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해도
요금제 변경 없이 데이터 주고받기
[별도 제공량 40GB 내 가능]
- 2nd 디바이스 두 대까지 무료
[태블릿, 워치 등 스마트 기기 월정액 무료 이용]
- 프리미엄 콘텐츠 무료
[U+비디오포털 / U+영화월정액 / 지니뮤직 앱 / 002 알뜰 5000 중 택2]

혼자서도 마음껏 즐겨 쓰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78

- 월 5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 가능
[선택약정 적용 시]
- 프리미엄 콘텐츠 무료
[U+비디오포털 / U+영화월정액 / 지니뮤직 앱 / 002 알뜰 5000 중 택2]
- 나눠 쓰기 데이터 별도 제공
[별도 제공량 15GB, 일반 2회 / 가족 간 4회 이용 가능]

※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데이터 44/49/59/69)는 고객님의 사용패턴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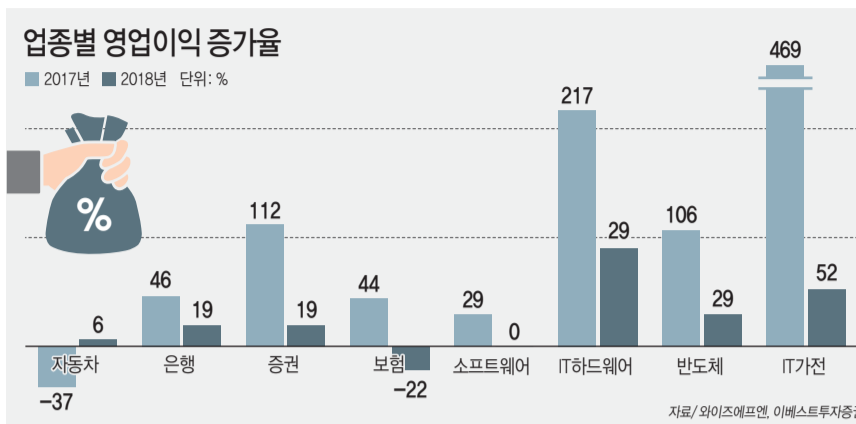
상장사 영업익 절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실적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익 17.2조 수준
SK하이닉스는 6.6조원 예상
전체 증가율 괴리율 기준 1.4%



한국경제의 버팀목 '반도체의 힘'이 3분기 상장사의 성적 우려를 덜어줄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가의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매출 65조 2000억원에 영업이익 17조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6조 6000억원(노무라 증권 예상치)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56조6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이익 괴리율 10%를 적용하면 3분기 영업이익은 50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신통치 않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기준으로는 12.6%, 지난해 3분기 이익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괴리율 기준으로는 1.4%에 머문다.

특히 삼성전자를 빼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5.1%, 영업이익은 18.5%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65조9800억원)에 다소 못 미치나 영업이익은 올 1분기에 써냈던 신기록(15조64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치다. 삼성전자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 장기화'다.

지난해 말부터 '다운턴'(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D램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낸드플래시도 평균판매단가(ASP)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스마트폰 사업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가동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과 함께 올레드 패널 부문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작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 노무라는 SK하이닉스가 3분기에 매출액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이하 영업이익 증가율 127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04.1%), 삼성SDI(229.1%), NHN엔터테인먼트(189.4%), 삼성전기(188.0%), 코스맥스(182.7%) 등도 장밋빛 실적이 예상된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559억원, -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한국은 수출주의 비중이 높아 기업이익은 환율, 수출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서 "특히 환율이 상승할 경우(원화 약세)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3분기 분기 평균환율은 증가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시장 움직임에 좌우하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하락세이고 시가총액이 큰 은행·증권의 작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아직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모멘텀이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양방향 투자자문 플랫폼

한국투자증권은 차별화된 투자자문과 일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과 투자자문사를 직접 연결하는 '양방향 투자자문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투자자문 플랫폼은 고객 전용 '트루 어드바이저'와 투자자문사 전용 '이프랜드 어드바이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는 ▲편리한 자문상품비교선택 ▲자문적용 포트폴리오 설계 ▲자문계약 성과분석 ▲일임상품 1대1 상담 서비스를, 투자자문사에게는 ▲강화된 해외주식 일임운용기능 ▲복수계좌 및 팔 자문서비스 ▲자문·일임고객관리기능 등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신한금융투자 디지털 혁신기업에 선발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IDC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18'에서 '옵니 익스퍼리언스 이노베이터(Omni Experience innovator)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수상은 '아만다의 글로벌투자여행 서비스'가 쉽고 빠른 글로벌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혁신성을 높게 평가 받은 결과다. 이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투자 캐릭터인 '아만다'가 해외여행을 하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글로벌 회사의 서비스, 제품 등 해외주식 투자 정보를 초보자 눈높이로 제공해 종목 선택을 돕는 형식이다. 신한금융투자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관련 콘텐츠는 20-40세대의 호평을 받으며 각광받고 있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수익률 7% ELS 공모

키움증권은 삼성전자 보통주와 코스피200(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추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 '키움증권 제862회 ELS'는 KOSPI 200 주가지수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3년 스텝다운 ELS이다. 두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2%(6개월), 90%(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7%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두 개의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1%(연 7%)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낙인배리어는 60%이며, 모집한도는 5억원이다. 청약 마감은 10월 5일 오후 1시까지이다. /손업지 기자 sonumij301@

LH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비전선포

'창립 9주년' 임직원 실현의지 다져 핵심가치 조합 'WITH' 슬로건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9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LH는 4일 경남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대강당에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 8000여 명의 실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축사 영상을



4일 LH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LH 창립 9주년 New VISION 선포식'에서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열 번째)과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통해 국민을 위한 LH의 더 큰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은 전문가, 시민단

체, 임직원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국가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

국토부, 3개 기관과 공동이행협약

국토교통부,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을 잡고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속도를 낸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5일 천안 두드림센터에서 천안역세권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착수하고, 시업시행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천안의 원도심이던 옛 동남구청사 부지 일대는 지난 2005년 천안시청이 외곽 신도심으로 이전한 후 아파트·업무·상업 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민자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실패해 왔다.

그러다 이 일대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채신화 기자

국토부·지자체·공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오는 2021년까지 동남구청사, 지식산업센터 및 수상복합 아파트(451세대) 등으로 이뤄진 원도심 혁신거점으로 복합 재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사례를 발판 삼아 천안역세권 뉴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사업 참여 공기업인 LH·코레일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세 기관도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재생방안 등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12월 뉴딜사업지 선정을 계기로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들 기관은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기관별 역할과 시행사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사업 참여 기관들은 천안역세권 일대에 약 4900억원을 투자하고 약 3만3000㎡의 토지를 출자·매입하게 된다. /채신화 기자

평택 '맘스 스퀘어' 214개 점포 분양

Advertorial Corner
동문건설, 주변 산업단지 풍부 4500여 세대 아파트 중심 입지



평택 맘스 스퀘어

동문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평택 신촌지구에서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상업시설인 '맘스 스퀘어'를 분양한다. 4500여가구 매머드 아파트 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주변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교육특화 관련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평택 맘스 스퀘어는 연면적 2만942㎡로 지하 1층~지상 5층 4개동 214개 점포로 구성된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5개 블록 4567가구(1만3000여명)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인 중심상업시설이다. 3개 블록 2803가구는 2016년 분양됐고, 2019년 8월 입주한다.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상업시설은 스트리트 형으로 저층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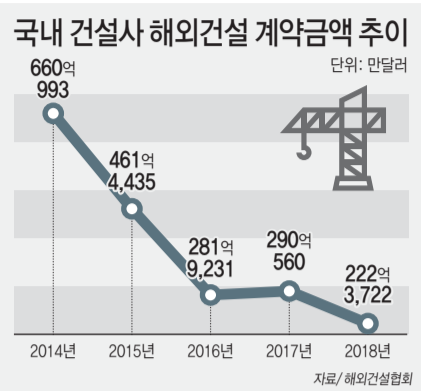
열식 배열이 특징이다. 동상교차로와 인접해 있으며 4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굿모닝 평택맘 프로젝트'에 맞춰 차별화된 교육특화 상업시설 구성이 눈길을 끈다.

동문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대치동 명문 학원타운' 유치를 위한 교육특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총별 계획은 1·2층 생활 밀착형 및 트렌드에 맞는 업종, 3층은 병원과 헬스&뷰티 시설 중심, 4·5층은 초·중·고교 전문 학원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해외건설 수주 '반토막'... UAE 사우디 이라크 중동 5국 공략해야

(상위 10개사)

수주액 급감·미수금 증가세 이어져 '수주 턱발' 중동서도 발주량 감소 하반기부터 대형 프로젝트 잇따라



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는 4분기인 현시점에도 지난해 수주액의 77%가량에 그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기 힘들어 보인다.

10대 건설사만 보면 해외 수주 감소세가 더 두드러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및 미수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사 해외건설 수주액은 290억 달러로 2014년(660억 달러) 대비 56% 급감했다. 해외

건설 진출업체 수도 2014년 459개에서 지난해 421개로 8% 가량 감소했다.

반면 미수금은 매년 늘어나 2012년 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2억500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자유가에 따른 발주처 예산 부족과 함께 발주국 내 전쟁 때문이다.

그간 전통적 수주 턱발로 손꼽히던 중동에서도 신규 수주가 메달렸다.

올해 해외건설협회 회원사의 연간 해외수주금액에서 중동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33.8%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엔 이 비율이 47.5%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다 2015년 37.9%, 2016년 35.8%로 줄다가 2017년 국제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50.3%까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중동 수주액 증가는 2016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체적인 계약금액 상승을 견인하긴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해는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중동·북아프리카 플랜트 시장 기대"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 건설사

의 해외수주에도 봄바람이 불 전망이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대형프로젝트 발주 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KB증권의 '건설-해외수주 한눈에: 주목해야 할 5개국' 보고서는 "MENA지역(중동 및 북아프리카) 플랜트 발주시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추세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 국가는 ▲대규모 정유설비 투자 집행 ▲후속 조치로서 다운스트림 분야 다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유가로 인한 대형프로젝트 발주 가능성 등의 공통점이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2018년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시작된 발주 사이클은 중기적으로 쿠웨이트와 사우디로 확대될 전망이며, 알제리와 이라크 시장 역시 발주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경우 8년 만에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다.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은

오는 2025년까지 450억 달러를 투자해 아부다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화학단지인 Gasolines&Aromatics(35억달러) 기술인발을 진행 중이다.

쿠웨이트도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나선다. 2014~2015년 Clean Fuel Project(120억 달러)와 New Refinery Project(150억 달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New Refinery와 통합 운영될 Al-Zour Petrochemical Complex(80억 달러)의 입찰이 내년 중 진행된다.

사우디도 Yanbu 지역에 정유와 석유화학 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200억 달러, Jubail 지역에 Mixed Feed Cracker를 건설하기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알제리와 이라크의 발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알제리는 Sonatrach를 중심으로 정유설비와 석유화학 설비 발주를 진행 중이다. 이라크는 생산량 증대를 위한 IOC의 투자가 재개되는 상황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coul.co.kr

서울 집값 부담에 수도권 새 아파트 관심집중

서울 아파트값 평균 8억원 돌파 접근성 좋은 경기권 분양 러시



'별내자이엘라' 조감도. /자이스&D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8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도 등 인접 지역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서울보다 가격 부담이 적지만 교통 편의성 등으로 서울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가격은 8억2079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8월) 8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2000만원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6년 8월, 6억원에 진입한 이후 7억원(2017년 12월)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7억에서 8억까지 걸린 기간은 단 8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서울과 접해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9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가격은 ▲하남시 5억 8013만원 ▲광명시 4억 8478만원 ▲안양시 4억 5053만원 ▲구리시 4억 1915만원 ▲부천시 3억 3706만원 ▲고양시 3억 5765만원 ▲김포시 3

억 3723만원 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한 주거단지의 인기도 높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지난 6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선보인 주거용 오피스텔 '삼송 더샵'은 총 318실 모집에 3352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마감했다.

대림산업이 지난 4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아파트도 237가구에 4230명이 청약해 평균 17.1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이 1순위 당해에서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규제가 잇달아 발

표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꾸준히 치솟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서울로 출퇴근이 쉽고 생활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12월에도 서울 접근성이 높은 경기도 지역에 분양이 이어진다.

자이스&D는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16블록에 '별내자이엘라'를 분양한다. 단지에서 약 300m 거리에 오는 2021년 개통하는 지하철 4호선 연장 북부별내역(가칭)이 있어 서울역까지 약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내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탐석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7호선 연장 탐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KCC건설도 같은 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대에서 '안양 KCC스위첸' 오피스텔을 선보인다.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경부선 전철 1호선 명학역이 있고 차로로 10분 거리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산본IC 등이 있다.

/채신화 기자

9월 외환보유액 4030억달러 '사상 최대'

외평채 발행·자산운용 수익 증가 탓

지난 9월 외환보유액이 다시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 규모는 4030억달러로 전월 말(4011억3000만달러)보다 1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 7월(4024억5000만 달러)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외환보유액이 다시 증가한 배경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과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외평채는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세부항목별로는 국채와 정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 유가증권이 3756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7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 중앙은행이나 글로벌 은행에 있는 현금성 자산인 예치금은 171억5000만달러로 9억달러 감소했다. 국제통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위변조대응센터 직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도 35억 1000만달러로 전월(35억3000만달러)에 비해 소폭 줄었다.

IMF포지션과 금은 각각 19억1000만 달러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4011억달러) 규모는 인도(4001억달러)를 제치고 세계 8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1위는 중국(3조1097억달러)이었고 일본(1조2593억달러), 스위스(8001억달러) 등 순이었다.

/김희주 기자 h89@

수출 줄 땐 환율 영향 적다

우리나라 수출 확장기에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과 실질실효환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탄력적이나 수축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국면전환을 고려한 수출변화에 관한 실증연구(김세완 이화여대 교수·최문정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에서 1994년 1분기~2016년 4분기 한국의 수출증가율과 세계 경제성장률,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 변화율 관계를 분석했다.

공분산 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GDP와 양(+)의 관계(장기탄력성 4.95), 실질실효환율과 음(-)의 관계(장기탄력성 0.02)를 유의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출증가율이 확장기와 수축기 간 국면이 전환되는 패턴을 보이므로 비선형 수출증가율 결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STAR-VECM 추정결과 수출증가율과 각 결정요인 변화율의 단기 관계는 수출증가율의 확장-수축기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GDP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간의 양(+)의 관계는 수출의 확장기에는 탄력적(단기탄력성 2.2)인 데 반해 수축기에는 비탄력적(단기탄력성 0.9)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실질실효환율 변화율과 수출증가율의 관계도 확장기에는 실질실효환율의 절하가 수출을 증가(단기탄력성 -1.67)시키는 영향이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축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출 국면에 따라 주요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출 전망 때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韓가계자산, 부동산 의존도 높아... 거품 꺼지면 '위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시장 따라 자산 움직이는 취약한 구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4일 은퇴리포트 37호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중 거주주택 전세보증금이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실물자산에서는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이 선진 4개국 평균인 4.0%의 3.4배 수준에 달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가계 자산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령화가 가계의 자산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4개국과 한국 가계를 비교·분석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운용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주식형 자산 투자에도 소극적인 편이다. 가계 금융자산

중 예금 및 저축성 보험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및 펀드 비중이 크게 낮다. 전체 자산 중 주식과 펀드를 합한 평균 비중은 미국의 0.5배, 호주의 0.4배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가계는 퇴직연금과 같은 은퇴자산 축적이 부족하고, 은퇴자산 구성과 운용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은퇴자산 구성을 보면 비교 대상 4개국과 달리 퇴직연금보다 생명보험과 개인연금 비중이 높고, 운용 스타일에 있어서도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

文 “좋은 일자리 만드는 주연은 기업… 정부는 조연”

(문재인 대통령)

SK하이닉스 공장서 일자리추 회의

측면 지원 ‘서포터 타워’ 역할 강조
대기업-중소간 상생 생태계 당부
민간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 지원
4년 내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일자리위 이목희 부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미래차,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주연, 정부는 조연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가 이날 의결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발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총 141개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투자 규모를 모두 합하면 1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프로젝트로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으로 1만5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

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돼야한다. 부처간 칸막이 없이 윈윈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도 가속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고 소개하고 “민간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미래차인 수소·전기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선 대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서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일자리위는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에너지 신산업이다. SPCC와 발전사업자 등이 대규모 태양광·풍력과 군(軍) 재생에너지 등 71개 프로젝트에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6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전 분야에서는 IoT 플랫폼 구축과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1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을 투자해 4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제조업 고용 역량 회복의 돌파구로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 과정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을 특히 당부하고 싶다”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거나, 스타트업 기업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이루고,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협동조합 10곳 중 6곳 “남북경협 참여” “1.1조 들인 산업부 R&D… 성과는 ‘글썸’”

중기중앙회 남북경협 인식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절반 이상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개성, 평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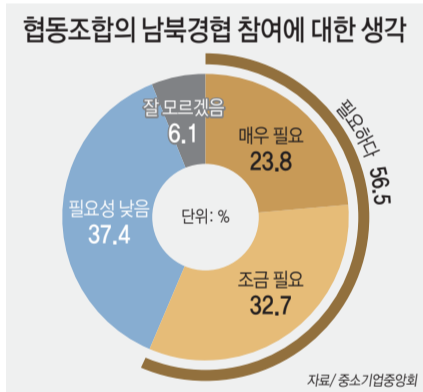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14개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10곳 중 6곳(56.5%)은 남북경협에 참여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개성, 평양, 신의주 등 북한의 ‘서해 경제벨트’를 선호했고, 특히 개성(48.1%), 평양(27.6%)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남북경제협력 방식으로는 개성공단과 유사한 북한 내 근로자 활용(39.3%), 북한 인력을 활용한 위탁가공무역 협력(28%), 제3국에서 북한 인력활용(6.1%) 등 북한 인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방식의 선호도(73.4%)가 높았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필요한 분야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 10개사 중 7개사(67.8%)가 남북경협 참가 시 예상되는 리스크로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같은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꼽았다.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7.9%로 높게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여기구 더민주 의원

R&D 성과평가 최하위권 기록 “산업부 성과를 제고 대책 시급”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도 하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종료 및 추적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둬 성과를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각각 73.1점, 75점, 76점으로 평가대상 정부부

처 사업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한 이번 평가는 2016년 종료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눠 이뤄졌는데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1524억원,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5335억원, 헬기기술자립화사업 4643억원 등 총 1조1502억원으로 이는 과거정통부 5개 사업 2조 4791억원, 교육부 1개사업 1조 7960억원에 이어 8개 정부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사업비를 쓴 것이다.

종료평가의 경우, 과기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91.0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안부의 ‘국민안전화보기술개발’ 89.1점, ‘방재실험시설구축’ 83.8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부가가치향상’ 81.5점, 환경부의 ‘환경융합기술개발’ 81.1점 순이었으며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11개 사업 중 9위로 평가됐다.

여 의원은 “국가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를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자영업 57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0.3%

김규환 한국당 의원

6년전 2만명서 1만7998명으로 줄어

우리나라 전국의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0.3%에 불과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4%로 OECD 39개국

중 6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중은 전체 자영업자 573만명 중 0.3%인 1만7998명에 그쳤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2년 2만명에서 2018년 상반기 기준 1만7998명으로 가입자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한다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59.1%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창업 10곳 중 7곳 5년내 망한다… OECD 평균 못 미쳐

김규환 한국당 의원

예술·숙박·음식업 폐업률 더 높아

정부가 창업에 예산이나 정책을 ‘올인’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지 5년 안에 10곳 중 7곳이 문을 닫고, 특히 예술·여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등은 10곳 중 8곳이 5년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계형 창업도 주류 아래에 비해 우리나라가 두 배 가량 많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4일 내놓은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들의 5년차 폐업률은 7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인 59.1%를 훌쩍 뛰어넘었다.

<창업기업 생존률 현황>

단위: %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5년차폐업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58.2	42.1	29.6	24.5	16.8	83.2
숙박음식점	59.5	42.3	30.2	23.5	17.9	82.1
사업지원서비스	57.4	45.5	35.8	28.1	22.5	77.5
도·소매	58.8	45.4	35.5	29.5	24.2	75.8
교육서비스	61.3	48.1	38.6	31.4	24.4	75.6
출판·영상·정보·서비스	63.1	48.7	40.4	36.6	27.7	7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76.5	59.8	47.0	41.8	29.87	7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5.8	55.7	46.1	38.0	34.5	65.5
제조업	70.1	59.4	49.9	43.7	38.4	61.6
한국	62.7	49.5	39.1	32.8	27.5	72.5
OECD 주요국 평균	81.7	66.8	54.7	47.2	40.9	59.1

*OECD는 2012년 기준. 한국 기업생멸행정통계(2012~2016). /자료=중소벤처기업부·국회 예산정책처

5년째된 창업기업이 살아남은 비율(생존률)이 고작 27.5%인 셈이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의 5년차 생존률은 16.8%, 숙박·음식점업의 같은 기간 생존률은 17.9%로 다른 업종보다 폐업이 잦았다.

그나마 제조업의 5년차 생존률이 38.4%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이 역시 OECD 주요 나라의 5년 생존률 평균인 40.9%보다도 낮은 모습이다.

/개종=최신용 기자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

선시공 후분양
10년 임대보장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5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 ✓ 공실걱정 無
- ✓ 유지보수 無
- ✓ 중개수수료 無

시행사: (주)골든핏 씨앤디
시공사: 대림산업
신탁사: 아시아신탁
분양사: (주)엔터렘

• 우리은행 : 1006-301-474637
•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 청약금 :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811-8821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시공사: (주)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45	보증금 1,000 / 월 41	보증금 1,500 / 월 37	보증금 6,500 / 월 20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투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당첨제이므로 당첨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지참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결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혜택**
- 1 1가구 2주택 미적용
 -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811-8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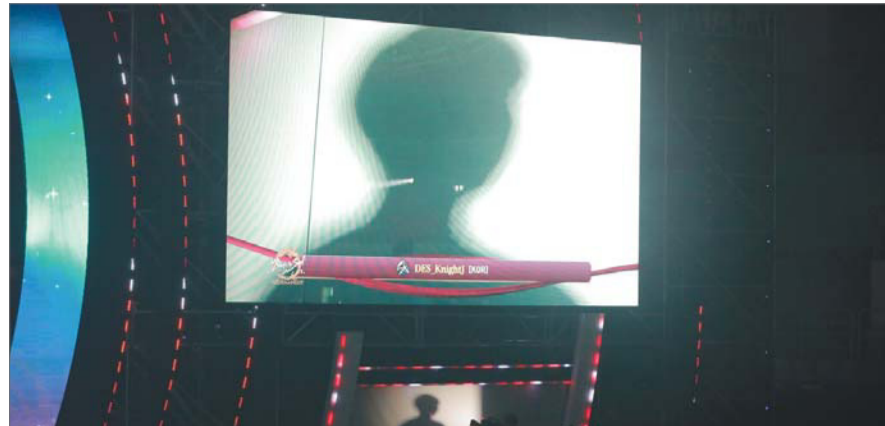
게임사인데 게임 안하겠다고? AI·VR 등 新시장 눈독

中 공세 속 반격 나서는 K게임

NHN엔터테인먼트
2·4분기 게임매출 985억 기록
스마일게이트
자사 IP '크로스파이어' 영화화
엔씨소프트
챔피언십서 '블소 비무 AI' 선배



비게임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NHN엔터테인먼트 사옥 전경. /NHN엔터테인먼트



'AI vs 프로게이머' 블소 비무 대결 진행 모습. /엔씨소프트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고위험 고수’ 산업인 게임 산업은 각사가 개발하는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변수가 많고 성공확률이 극히 적다. 게임 시장이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 위주로 재편되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하다. 낮은 확률로 ‘히트작’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대박’이지만, 중소·중견 기업이 그 시간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이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신사업전략은 사업 다각화와 신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PC·모바일 게임을 넘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간편 결제와 같이 게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가속화 되는 탈게임...“안정적인 비게임 사업과 투트랙으로”

4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게임 산업에서의 상위 10대 M&A 거래 중 3건은 중국 기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게임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사업을 다각화해 글로벌 게임 시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텐센트는 막강한 자본력을 무

기로 ‘클래시오브클랜’, ‘클래시로얄’ 등 히트작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자사 영향력을 해외로 넓히고 있다.

국내 게임 기업은 주력 산업인 게임과 동시에 정보기술(IT)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3월 ‘빅3’ 게임사 중 한 곳인 넷마블은 회사 이름에서 아예 ‘게임즈’를 떼어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올 초 열린 NTP를 통해 “넷마블은 현재 투자유치 및 상장 등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선제적인 미래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넷마블은 AI 센터를 설립하고 IBM 왓슨연구소 출신 이준영 박사를 영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25.71%의 지분을 보유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연내 시네마틱 모바일게임 ‘BTS 월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 다각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NHN엔터테인먼트다. NHN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타매출이 주력 사업인 게임 매출을 뛰어넘었다. 지난 2·4분기 게임 매출은 985억원을 기록했

지만, 기타 매출은 2267억으로 집계됐다. 불확실성이 강한 게임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를 중점으로 금융 서비스 등을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 NHN엔터는 종합여행사인 ‘여행박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1대 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NHN엔터 관계자는 “이번 여행박사의 인수는 페이코와의 시너지를 위해 진행됐다”며 “페이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추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인 ‘크로스파이어’를 영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흥행 산업이라 성공 여부에 따라 매출 변동이 잦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의 수익 창출에 용이한 비게임 사업을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임 고도화해볼까?...신기술 투자 올인

이와 함께 주력 사업인 게임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2011년부터 AI 연구개발을 첫 발을 내딛은 후 회사 내 자체적인 AI 연구개발 조직으로 2개의 센터와 산하 5개 랩(Lab)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AI랩 산하 NLP팀을 신설한 후 지난해 AI센터와 NLP센터로 확장한 것이다. 현재 AI 전문 연구인력 1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인텔 블레이드&소울(블소) 토너먼트 2018 월드 챔피언십’ 결선에서 선보인 ‘블소 비무 AI’가 그 결과물 중 하나다.

엔씨 관계자는 “프로게이머도 충분히 상대할 뿐 아니라 보는 재미를 줄 수 있는 AI를 만들고자 했다”며 “학습방법에 변화를 줘 공격형, 방어형, 공수 균형 등 개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넥슨도 지난해 ‘인텔리전스랩스’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AI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지난 3월 넷마블도 ‘넷마블인공지능 레블루션센터(NARC)’를 설립해 이용자 수준에 맞춰 진행되는 지능형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과 더불어 신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 발굴이나 AI, 가상화폐 등 게임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이 법과 제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진흥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섣달의달 도입이나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 작업이 그 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 중독을 ‘게임장애’란 정신질환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게임 업체들이 게임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게임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정부에서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잔존하면 게임 출시에 대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중진공, 이란 수출피해기업 용자연장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이란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4일부터 정책자금 용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이란의 핵합의 탈퇴시 제재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서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자금 용자 만기연장 지원 조치도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대출금을 보유중인 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388개사로 집계됐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술력 갖춘 中 小 企 製 品, 公 共 機 關 書 試 販 購 買

공공조달 납품실적 5억 이하 기업 기술개발제품·특허청 우수발명품 등

기술력은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 납품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공기관로 개척길이 추가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5일부터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첫걸음기업’이란 공공조달 시장에 납품 실적이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소액과제란 공공기관이 2000만원 이하의 기술개발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업이 기술개발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인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없애 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매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구매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해 감사에 걸릴 것을 우려해 기술제품 구매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특



〈소액과제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 기업 ②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제품 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 제품 ②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③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발명품

히 이번에 도입된 소액과제는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상시 접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창업기업이나 소공인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수익계약 가능 기술개발제품 11종 외에도 추가된 기술개발제품 5종, 조달청 벤처나라 제품, 특허청 우수발명품이 소액과제 참여대상에 포함된다.

구매지원 방식도 기존 1회성 지원에서

지원대상 선정 후 1년간 장기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신청기업이 시범구매를 위해 매년 신청과 평가를 받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액과제 지원계획 공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가 1호로 시범구매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등 중기부 산하의 유관기관도 시범구매에 두루 참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LG하우시스 지인 벽지 디자인 ‘IDEA 디자인상’ 수상

LG하우시스가 입체적인 디자인과 친환경성을 갖춘 ‘지인(Z:IN)벽지 디자인(DIAMANT)’(사진)으로 ‘2018 IDEA 디자인상’을 받았다.

LG하우시스는 4일 미국 산업디자인협회(IDSA)가 주관하는 ‘2018 IDEA 디자인상’에서 지인벽지 디자인이 ‘홈(Home)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IDEA 디자인상’은 ‘iF 디자인상’, ‘레드닷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국제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로 디자인 혁신성, 사회적 책임, 사용자 경험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디자인’은 기존 벽지 대비 제품 표면의 엠보싱 깊이가 두 배 더 깊어 섬세하면



서도 입체적인 패턴 구현이 가능한 것은 물론 무게도 가벼워 시공 편의성을 높인 점이 디자인 혁신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어물쩍 넘기면 '대물림'... 부부폭력은 '범죄' 인식 개선을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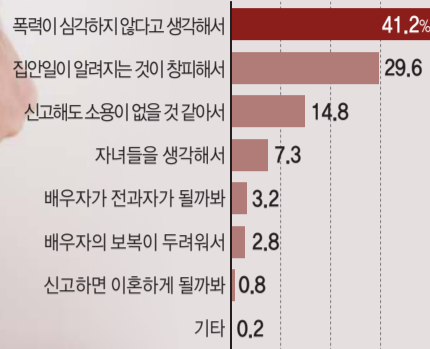
㉑ 부부폭력

배우자에 폭력당한 비율 女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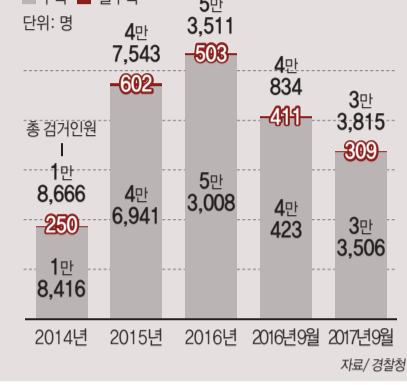
법개정에 '피해자 보호대책' 늘어 생계비 등 피해자지원 최대 3개월 정부, 가정폭력 규정·교육해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 검거인원과 조치현황



사립'을 신설해, 기존 형사과가 일반 폭력 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케 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가해자가 격리·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입시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구성원이 폭력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지자체가 주거 공간과 생계비, 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처음 한 달 간 이어지지만, 1개월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208개소가 설치돼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66곳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은 315곳이다.

인수형 제다움 심리상담카페 소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가부장제 국가인 한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 젊은 남성이 더욱 귀해진 배경도 있다"며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옆집이 줄줄이 따라하는 전염 현상은 현재 장년층이 어린 시절 겪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인소장은 "정부가 세대를 가리지 말고 무엇이 가정폭력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교육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내용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과 동일시 하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1. A씨는 48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A씨의 목을 졸랐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와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역시 저항하지 못했다. 병원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A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집 '꿈을 그리다').

#2. B(44)씨는 간호사인 아내 C(41)씨로부터 매일 폭언을 듣는다. 신혼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고생시킨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가정폭력 예방·극복을 위해 부부 간 폭

력 피해 사실이 '창피하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인식이 명확해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어물쩍 넘기면 자녀에게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설명이다.

4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9월 3만5004명이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9월 2만8866명으로 줄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2013년 37.5%였던 부부 폭력률이 2016년 14.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은 독립적이고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가 반복되기 쉽다.

◆가정폭력, 참으면 대물림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6000명(여성 4000명)이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29.6%)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48.1%)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는 응답은 18.3%에 달했다. 아동기에 부모끼리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33.2%)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12.7%)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후 부부가 되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은 여성이 12.1%였다. 남성의 배우자 가해율은 11.6%였다. 여성은 9.1%로 비슷했다. 다만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부분 남성이 폭력을 시작(남편 48.4%·아내 15.8%)하는 만큼, 여성의 가해율에는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비율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다.

부부 폭력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

피해 여성의 절반인 45.1%(남성은 17.2%)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자의 신고 의지는 약한 편이다. 응답자의 66.6%(여성 63.9%·남성 70.7%)가 배우자의 폭력 행위 당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에 머물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였다. 연구원은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에 가정폭력 교육 시급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과거와 달리, 수차례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늘어났다. 경찰은 2015년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수

한우 마리당 생산비 23만5천원 줄었다

농진청, 사육기간 3개월 줄여 맛·육량 유지 사육기술 개발



농진청은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 기간을 앞당기고도 맛과 풍미, 육질과 육량을 유지하는 '한우 사육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한우 농가의 대부분은 마블링(근내지방)이 많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1개월간 키우는 고비용 사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수입 소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미국산 소고기보다 1.7배 높다. 우리나라 소고기 자급률은 가격 경쟁과 수입 소고기의 관세 인하 등으로 2013년 50.1%에서 2017년 41%로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은 사육 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하는 것으로, 비육 기간이 기존 31개월에서 28개월로 3개월 짧아졌다.

식 평가에서도 28개월 한우는 단맛, 감칠맛, 풍미 면에서 31개월 한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한우 1마리당 생산비를 23만5000원 정도 줄일 수 있다. 국내 거세한우 전체에 적용하면 한 해에 약 936억 원 가량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생산비가 줄어들면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특허출원하고 산업체와 생산자 단체에 이전했다.

양창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한우고기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는 낮추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 소고기와 차별화한 한우고기 생산으로 자급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시장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사업장 선정

해수부, 전국 50곳 평가·발표

해양수산부가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4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공관장 등 총 50개소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됐다.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리·운영 측면에서 전자송품장, 표준거래 정착 등 거래를 효율화하고, 간극 표준거래 단위를 추진하는 등 물류효율화

를 이루었다는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사업장으로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도매시장 평가 체계 개선과 우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더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배식 받는 어머니모니터링단

제5기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이 4일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부, 2018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오늘까지 코엑스 그랜드볼룸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주요국 전문가 및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를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공급 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믹스 전환과 함께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를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구현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33위)의 에너

지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별 소비구조 혁신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점의 미래 에너지 산업 플랫폼 구현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패할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을 역임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구자인 페터 헤니케 박사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유은혜 취임에 불붙은 ‘학종 비교과요소’ 폐지론 “금수저·깜깜이전형” 시민단체 목소리 높여

학종 비교과 준비부담 커
고소득층에만 유리 지적

교육부 수장이 바뀌면서 이미 일단락된 대입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수저 전형’이나 ‘깜깜이 전형’으로 지목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줄여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종 전형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어 이들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없애고 입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학종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입학사정관제란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종의 비교과 요소를 대폭 삭제해 학부모와 학생 부담을 없애고 입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 영역 평가를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의미있는 교과 평가 기록이 부족해 비교과 영역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이명박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과 중심 학종으로 변화했다.

비교과 영역은 소논문이나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으로 학교 교실밖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로 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준비하기 힘들다. 학종이

학교밖 다양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해 ‘금수저 전형’으로 낙인찍힌 이유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부 기록 중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자격인증,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은 삭제하거나 대학 입시에서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종 비교과 요소 대폭 폐지는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으며, 반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적고, 폐지를 발목 잡을 연계 정책들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초 시민참여단을 통한 학종 개선안을 낸 데 대해 “교육부가 학종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진행하면서 17만명의 학술 설문조사를 통해 학종 개선을 위해 비교과 요소에 대한 불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모은 시민 100인들이 이런 흐름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종은 교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되, 교과 영역 평가는 5지 선다 객관식 문제 풀이 평가를 없애고 프로젝트수업과 논술평가 등으로 수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016년 전국 2만4912명의 고교생과 학부모, 교사 대상 대입 전형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학종의 문제점으로 ‘준비부담’을 꼽았다. 이어 ‘수준비단절’, ‘공정성’, ‘학교 프로그램, 교사능력 부족’ 등이 꼽혔

다. 또 학종 비교과활동 준비가 부담된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86.7%에 달했고, 대다수 학부모(85.3%), 교사(92.5%)도 비교과활동 준비가 힘들다고 했다. 이 같은 설문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유은혜 당시 교육위 의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에게 “신임 교육부 장관은 이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연내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고 2022대입 제도에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이들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늦어도 내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학생부기록에 관한 교육부 훈령이 바뀌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기록에 관한 사항이 수정되면, 그에 따라 2022 대입제도 개편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지난 8월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과 흡사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소간의 학생 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류형 제출서류서 예상문제 만들고 제시문형 기출문제로 출제유형 익히기

메트로가 꼭 짚는 대입전략

⑩ 서류형·제시문형 면접 대비

의학·교육계열, 인적성면접 준비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 여러 요소가 수시 합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 합격의 변수로서 면접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경우,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면접 성적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할 수 있다.

면접고사는 대학별고사이기 때문에 대학별 그리고 전형별로 유형이 다르다. 면접고사의 유형은 우선 서류형과 제시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서류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제시문형은 국문 혹은 영문의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에서는 서류형 면접을 실시하는 반면 일반전형에서는 제시문형 면접을 실시한다. 연세대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전형에서는 서류형과 제시문형을 병행해 면접을 실시한다.

서류형 면접의 경우 학생 개인별로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질문이 다르므로 면접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반면 제시문형의 경우 공통의 제시문으로 면접을 진행하므로 면접 문제가 공개된다. 따라서 서류형의 경우 본인의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예상 질문을 뽑아 대비해야 한다. 활동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동기에 대한 질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제시문형의 경우 지방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통해 제시문의 형식과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한다. 영어제시문의 경우 지문의 수준에 맞는 독해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수학과 과학 문제를 주는 경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과 과학문제 풀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제시문의 경우 대부분 논리적인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SKT-연세대 경차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

차량공유 서비스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가 도로 위를 달린다.

SK텔레콤은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손잡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차에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이 이번엔 자율주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 모델은 기아차 ‘레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텔레콤과 연세대 연구팀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기 연세대 송도캠퍼스 내 도로를 달리고 있다. /SK텔레콤

윙동·게임 등 놀이중심 영어교육은 ‘허용’

교육부 유치원 영어금지 철폐

학부모 수요 고려해 심의 거쳐 운영
초1~2 방과후 영어금지 해제 가능성

영유아 시기 영어 교육 금지가 논란인 가운데 ‘놀이중심 영어 교육’이 전격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 영어 교육 요구 등을 종합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문제에 대한 질문에 “유치원 영어는 놀이중심 방과 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허용되는 영어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형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입장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과정 금지도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의견 수렴 결과,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 유치원 교육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영어교육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번 결정은 또 매년 10~11월에 유치원 학사일정을 결정해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도교육청은 놀이 중심 영어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치원에서는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운영하고,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홍수 기자

성인 10명 중 9명 “‘수저계급론’ 현실”

잡코리아·알바몬 1336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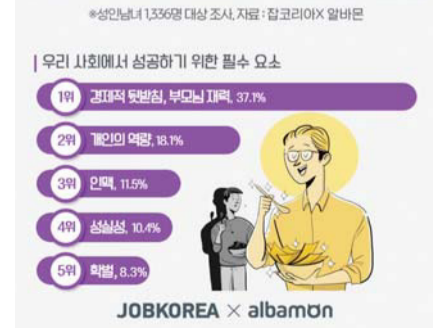
성공필수 요소 1위 ‘부모님 재력’

대한민국 성인남녀 10명 중 9명 이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부모님 재력’을 꼽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성인남녀 133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같이 나타났다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90.3%가 ‘썩슬하지만 수저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수저계급론’은 만들어낸 말일 뿐 ‘이라며 부인하는 응답은 9.7%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동기관에서 2년 전 조사결과 84.9%와 비

성인 90.3% ‘수저계급론’은 현실



교하면 5.4%p 가량 증가한 것이다. 자신을 흙수저에 가깝다고 답한 응답자는 65.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금수저에 가깝다’는 응답은 1.2%로 미미

했다. 33.6%는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 은수저 정도’라고 했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우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경제적 뒷받침 및 부모의 재력(37.1%)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개인의 역량(18.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음으로 ▲인맥 및 대인관계 능력(11.5%) ▲본인의 성실성(10.4%) ▲학벌 및 출신학교(8.3%) 등이 5위권 안에 올랐다.

/한홍수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가 풀릴까?

2020 광역도시계획 - 여의도 면적의 83배 그린벨트 해제 예정!

- ▶ 30만㎡ 이하 GB해제권한 국토부 → 시도지사에게 부여
- ▶ 주택 100만호 택지공급 위해 GB해제 검토중
- ▶ 국토부, 전수조사 중...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허용-
- ▶ 정부의 GB정책 - 환경보전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 추진
- ▶ 중소규모의 GB는 지자체 자율 해제 허용 방침
- ➔ **전체면적의 GB가 85.5%인 의왕시, 최대수혜 예상**
택지공급,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풀 수 밖에 없다!!

내년 2월 입주시작!



신도시 도로 접 토지매각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그린벨트 임야

- 성공투자 포인트 -

- ▶ 신도시 1차 설계시, 「**단독주택 용지**」에 포함되었던 지역임.
- ▶ 신도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8~10m 도로를 접하고 있음.
- ▶ **경사도가 없는 평지수준의 토지**로 산림 훼손이 심한 낮은 임야임.
- ▶ 도로, 상하수, 통신 등 **기반시설이 매각지 앞까지 들어와 있음.**

강남 15분(청계 IC 600m), 백운호수 인접

네이버에 **학의동 산100-2** 검색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2번 출구
- 월곶~판교간 청계역** 2024년 개통
- 양재~봉담간 고속화도로 청계C 600m**



【단독 매매 가능한 지분등기 / 위치공증서 발급】

지분투자자로서 샀는데 잘못 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 행사/ 다른 사람에게 동의없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 ▶ 위치공증 인증서 및 매수인간의 토지사용 합의서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본 매각지는 신도시 1차 설계시, **도시용지 범위**에 포함되었던 **임야**로 신도시가 완성 후, **지가상승**은 물론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땅은 많지만 돈이 되는 땅은 따로 있습니다! 입지적 가치와 도로가 뻗어나가는 방향을 보세요~



길이 뚫리면 돈이 보인다

“명품은 명품값을 한다~” 수도권 그린벨트 중 가장 뛰어납니다!



매물이 없다! ※주변시세 : GB 전담 3.3㎡당 200~300만원, 건축 가능한 토지 800~1,200만원 선.

인프라 포인트

-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신도시 개발호재 (2020년 완성)
- ▶ 청계IC 이용, **강남 10분대 진입** (양재~과천~봉담 고속화도로)
- ▶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청계역**」 1km (2024년 개통예정)
- ▶ 백운로·의일로 4~6차선 확장~제2경인고속(북청계 연결)
- ▶ 의왕 백운~오전동 4차선 신설도로 (2020년 개통예정)
- ▶ 스타필드 규모의 롯데복합쇼핑몰 (10만㎡) **입점예정** (2020년)

계약금 10% 우리은행 1005-303-474246 (주)백운디앤씨
 ▶청약금→필지배정→현장답사 및 계약금→잔금납입→책임등기·소유권 등기이전

(주)백운디앤씨
 책임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신홍제

031)462-9090

성공적인 임플란트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최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술대상과 연령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자연치와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성을 갖추고 있어 '치의학의 신기원'이라고도 불린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은 평소 구강 관리만 제대로 이뤄져도 반영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은 물론 젊은층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는데, 임플란트는 고액의 치료비용이 드는 만큼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저렴한 치료비용이나 할인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임플란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보상

받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임플란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계산 하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술 집도의가 아무리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이라 할지라도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활용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활용을 보편화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프로세스는 환자의 현 상태와 치료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환자의 진료동의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임플란트 치료는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나 상호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치료비용이 터무니 없어 저렴하다면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 중이라면 의사에게 미리 알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며, 노년

층은 노화로 인해 잇몸뼈가 소실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임플란트를 식립할 충분한 잇몸뼈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잇몸뼈이식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치조골이 약한 노년층이나 당뇨환자는 수술 전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치료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노벨가이드 임플란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벨가이드 임플란트'는 마우스피스 모양에 구멍을 뚫어 인공치아를 심을 정확한 위치와 각도를 유도하는 장치로 기존 임플란트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최첨단장비다. 이 수술 역시 CT와 수술 설계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 당일 음식섭취 및 일상생활 복구가 가능하다.

또 환자의 사후관리 방법에 따라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임플란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사용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이 남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치과전문사의 믿음신치과 원장

현대차그룹, 인니 피해 지원금 50만 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은 강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에 차량 등을 포함해 총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계열사별 지원 금액은 현대차 20만달러, 기아차 10만달러, 현대건설 10만달러, 현대엔지니어링 10만달러다. 이번 성금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측과 협의해 인도네시아 현지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1년 미국 토네이도,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올해 라오스 홍수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에 성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현지 구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양성운 기자 ysw@



대림산업, 협력사와 '동반성장 공정거래 협약식'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림산업 박상진 대표(오른쪽)가 일우건설산업 이석무 대표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고양 아파트 2곳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대우건설은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0년간 무상임대료 대우건설이 시공하며, 고양시가 임대 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략 입주 후 1년여 뒤 개원하는 것에 비해, 이렇게 협약을 맺은 단지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대부분 입주 초기에 개원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서울시, 충남, 경북 지역 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체결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협약이다.

윤점식 마케팅실장은 "대우건설은 건



대우건설이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와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왼쪽 네 번째부터 코리아인스타 이재학 신약사업본부장, 고양시 노양호 여성가족국장, 대우건설 윤점식 마케팅실장, 중원종합건설 서동환 이사. /대우건설

설사 중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통한 공공보육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일산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00-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25층의 16개 동으로 구성

된 169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입주는 2018년 10월 말이다.

주상복합단지인 '삼송 원흥역 센트럴 푸르지오'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5로 25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의 4개 동 아파트 450가구로 구성됐다. 현재 입주 중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우리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경찰관에 감사장

우리은행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영입점 인근 경찰과 영입점 직원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수형 우리은행 소비자브랜드그룹 그룹장(왼쪽 네번째)이 피해예방 유공 경찰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KT&G, 인니 재난 복구에 1억 긴급지원

KT&G가 강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재난 복구를 위해 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으로, 조기 피해 복구 작업과 주민 생존을 위한 구호물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지진과 쓰나미의 여



파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도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현지 구호 작업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복구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상상펀드'에서 전액 마련됐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장 이원주 △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윤성혁 △ 통상정책총괄과장 강감찬 △ 홍보소통과장 윤선영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도영 △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 일자리위원회(파견) 이원두
- ◆소방청 △ 승진 △ 소방청 차장 신열우 △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흥교 △ 소방청 119구조구급과장 김일수 △ 강원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배덕곤 △ 전보 △ 부산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 △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최병일 △ 중앙소방학교장 이형철 △ 중앙119구조본부장 김홍필 △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윤순중 △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변수남 △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김성곤 △ 소방청 대변인 조선호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부음

- ▲ 조순례씨 별세, 한성권(JW홀딩스 대표이사 사

美 클리오 광고제

제일기획 '8개 본상'

제일기획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18 클리오 광고제' 시상식에서 국내 광고회사 중 가장 많은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9회째를 맞은 클리오 광고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고 시상식 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출품된 우수 캠페인들의 창의성을 평가해 상위 5% 이내에 드는 작품들에 상을 수여한다.

제일기획은 국내에서 진행한 2건의 공익 캠페인으로 동상 2개를 받았으며, 네덜란드·스페인·홍콩·인도 등 해외 캠페인의 동상 6개를 더해 총 8개의 동상을 수상했다. 동상을 받은 한국 공익 캠페인은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더스트씨(DUSTSEE)'와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제작한 '스톱 다운로드킵'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S리테일 '상호존중' 캠페인 진행

GS리테일이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상호존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이 실시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은 GS25, GS수퍼마켓, 말라블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매장 곳곳에 비치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예정이다. 홍보물은 전국의 GS25와 GS수퍼마켓, 말라블라 매장의 계산대 앞면에 부착되며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직원은 고객님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GS리테일

옥상의 변신은 무죄

홈플러스 루프에 벼룩시장 선다

12~13일, 대구점 '보부상마켓' 개최
셀러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보부상마켓', '핑글시장', '마켓음' 등 열리기만 하면 수천, 수만 인파가 몰려 '지름신'을 부르는 것으로 이름난 플라마켓이 대형마트에도 들어선다.

홈플러스는 오는 12~1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구점 7층 옥상 주차장에서 '보부상마켓'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보부상마켓'은 장소와 날짜가 정해지면 참여를 희망하는 셀러(판매자)들이 음식,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각종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선보이는 일종의 플라마켓이다.

생산 규모는 작지만 공들여 직접 만들거나 셀러의 취향에 따라 독특하게 구성한 소품, 건강 먹거리, 감각적인 디자인 제품들이 주를 이뤄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다.

이번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열리는 '보



부상마켓'은 대형마트 옥상의 넓은 공간을 활용,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70여 셀러들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아울러 선착순 고객 5000명에게는 홈플러스 대구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해 쇼핑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회사 측은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한 '스페셜' 매장 1호점인 대구점에 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평소 쉽게 만나기 힘든 소상공인과 공예가들의 다양한 아이템을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옥상 유희 공간을 시민들

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 플랫폼'으로 변신시켜 신규 고객 유입을 도모하는 한편, 방문객들이 마트를 이용하며 생기는 다양한 '사위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6월 22~23일 홈플러스대전둔산점에서 열린 '보부상마켓'에는 대전은 물론 동탄, 울산에서부터 원정 온 고객들까지 7000여 명이 몰리며 평소보다 객수가 9%나 늘었고, 푸드코트 매출은 20% 이상 신장했다. 전국 13개 점포 옥상 풋살파크에는 유소년 축구클럽과 네티즌이 부대를 중심으로 연간 약 110만 명 고객이 신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홈플러스 문화콘텐츠팀 김민수 팀장은 "대형마트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각 지역의 체험과 문화를 공유하고,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 1번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신을 시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롯데마트 랍스터 페스티벌 개최 롯데마트 홍보도우미들이 4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 수산매장에서 캐나다산 자숙 랍스터(바닷가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0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랍스터 페스티벌'을 통해 자숙 랍스터를 1마리(450g 내외) 9천8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올리브영 "셀프 마사지용품 매출 5배"

스트레스 해소·피로 회복 제품 특수
건강관리 트렌드 힘입어 꾸준히 인기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을 위한 '셀프 마사지용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부분이 지친 여름을 보낸 가운데, 가을 들어서도 추석과 개천절 등 연이은 연휴를 보내며 피곤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안마기, 마사지 크림, 피로 회복 패치 등 스스로 건강을 케어하는 상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추세를 보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올리브영은 9월 한 달 간의 매출을 살펴본 결과 마사지·안마용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전월 대비로는 약 72% 신장하는 등 마사지·안마용품 카테고리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신체 부위별로 피로 회복을 돕는 아이템도 인기다. 편안한 수면과 휴식을 돕는 안대와 아이마스크는 전월 대비 매출이 60% 증가했으며, 발·다리 피로 회복 용품은 3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최근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건강 관리를



업무에 지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셀프 마사지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CJ올리브네트웍스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젊은 세대에까지 확장되면서 가성비 좋은 건강관리용품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소비 흐름에 따라 최근 두 달간 현대인의 일상을 편안하게 케어해 주는 마사지·안마용품을 다수 선보이며 고객 니즈를 공략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입점한 '타이거밤 넥앤숄더 크림'은 지친 목과 어깨를 위한 마사지 크림으로, 입점 첫 달 대비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가의 안마의자 등으로 한정됐던 기존 마사지·안마용품의 수요가 점차 가성비 좋은 일상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의 니즈에 걸맞은 다양한 피로 회복 용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이마트, 세일페스타 끝나도 할인은 '쭈욱~'

10월 한 달간 가전할인 행사 지속
소비심리·내수 경기 회복에 일조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끝나도 이마트의 가전 할인 행사는 10월 내내 계속된다.

4일 이마트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후에도 10월 내내 지속되는 가전 행사를 통해 명절 성수기 직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내수 경기 회복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장율이 높은 이마트 가전 행사 기획을 통해 이마트 전체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마트 MD별 매출 신장을 확인해본 결과 가전이 17.4%로 가장 높은 신장율을 기록했다.

우선 이마트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시작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대형가전 할인 행사를 10월 10일까지 이어나간다.

TV, 건조기, 냉장고 등 대형가전 행사 상품 구매 시 금액대별로 최대 30만 원까지 상품권을 증정하며, 행사카드 구매 시 최대 50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마트 디지털 가전 전시회 모습. /이마트

이마트 디지털 가전에서는 10월 1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획모델인 삼성 노트북9 Metal(NT900X5J-KS F) 제품, LG 그램(15Z980)을 할인 판매한다.

이어지는 10월 2주차인 11일~24일까지는 일렉트로마트 전점 할인 행사와 프리미엄 대형가전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일렉트로마트 전점 행사에서는 최근 대세 아이템으로 부상한 블루투스 이어폰 AIRPOD 3만원 할인, 뱅앤올룹슨 이어폰 E8 구매 시 4만원 상품권

을 증정한다.

또한 일렉트로마트 전점 행사 기간 동안 캐논·소니 카메라를 특별 가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가을 나들이 고객을 위한 소니 모바일 프로젝터(MP-C L1P)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60인치 와이드 스크린을 증정한다.

동기간 진행되는 프리미엄 대형가전 할인 행사에서는 이마트 70개 점포에 특별 행사장을 구성, 행사카드 구매 시 최대 30만원 할인과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GS리테일, 지역 축산업체 유통 도우며 상생

GS리테일이 지역 축산 업체와 유통 전과정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10월 전남장조경재혁신센터(이하 전남혁신센터)의 품평회를 통해 지역 축산 업체인 콤스영농조합과 첫 인연을 맺었다. 콤스영농조합은 원광대 한의과와 10년 연구 끝에 개발한 한약재 사료로 키운 무항생제 돈육 브랜드 '콤스 유향 포크'를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축산 업체다. 콤스영농조합은 한방 사료와 관련한

특히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외 다수의 인증을 취득한 업체로 축산 기술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통 판로가 없어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GS리테일이 전남혁신센터를 통해 업체의 우수성을 알아 보고 '16년부터 GS수퍼마켓에 콤스 유향 포크를 도입한 이래 콤스 영농 조합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GS수퍼마켓이 차별화 상품으로 도입해 판매하는 콤스 유향 포크는 특허 받은 한약재를 먹여 키워 일반 돼지고기에 비



콤스 유향 포크 상품. /GS리테일

해 누린내가 현저히 덜하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아르기닌산 함유량이 높다. 최근 율로(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 형태, YOLO)족의 증가와 웰빙 먹거리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GS수퍼마켓에서의 매출도 매년 16%씩 신장하고 있다.

/김민서 기자

어퓨, 태국 진출... 동남아 시장 공략 박차

방콕 대형 쇼핑몰에 1호점 오픈

어퓨가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에이블씨엔씨는 화장품 브랜드 어퓨가 태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콕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센트럴 플라자 핑클라오(Central Plaza Pinklao)'에 어퓨 태국 1호 매장이 문을 열었다. 센트럴 플라자 핑클라오는 유명 패션브랜드와 영화관,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있어 어퓨의 주요 고객층인 10~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퓨는 이달 말 방콕 지역의 대형 쇼핑몰 '더 몰 방콕피(The Mall Bangkok Pi)'에 2호 단독 매장을 연다. 다음 달에는 2개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하며, 내년 1월에는 방콕의 최대 쇼핑 메카인 시암스퀘어에 매장을 열 계획이다.



어퓨 태국 1호 매장에서 손님들이 제품을 구경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

태국의 H&B스토어에서도 어퓨 제품의 판매가 시작했다. 어퓨는 지난 달 말 에스티모더, 크리닉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가 입점된 태국의 고급 드럭스토어 '이브앤보이(EVEANDBOY)' 5개 지점에 입점을 완료했다. 이달 말까지 방콕 내 10개 지점 등 이브앤보이 12개 전 지점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휴온스, 당뇨 분야 의료기 사업 확대

연속당 측정 'G5' 독점 판매

앱서 당 수치 모니터링 가능
당뇨 환자 '삶의 질' 향상 기여

휴온스가 당뇨 분야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휴온스가 미국 '덱스콤'의 연속당 측정기(CGM)인 'Dexcom G5'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휴온스는 올 10월 말부터 전세계 연속당(글루코오스) 측정기 시장의 리딩 기업인 덱스콤의 'G5'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연속당 측정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제품력과 편의성으로 잘 알려진 'G5'를 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G5'는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출시 요구가 쇄도했던 제품인 만큼,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5는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자동으로 연속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측정된 값을 5분 간격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또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휴온스가 독점 판매하는 연속당 측정기 G5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앱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람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체액 흡수 또한 1일 2회로 줄여줘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체액을 해야 하는 기존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특히 'G5'는 성인 환자대상 MARD가 9%, 2세 이상 소아 환자 대상 MARD는 10%로, 환자의 당 측정에 있어서 고도로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 MARD는 당 측정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정확성의 통계적 척도로, 낮은 %일수록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인 만큼, 전세계적으로 편의성과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는 'G5'가 국내 당뇨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속당 측정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덱스콤의 기술력과 헬스케어 규제 분야 전문기업 사이넥스의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연속당 측정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280만명 규모이며, 이 중 소아 당뇨(1형 당뇨) 환자 수는 2만1000명에 달한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oul.co.kr

반려동물 털까지 싹~ '아이클레보 O5' 출시

유진, AI 로봇청소기 출시표

해외 50개국서 판매 목표
"2023년 매출 3000억 달성"

유진로봇 신경철 회장이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청소기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 LG전자에 도전장을 던졌다.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로 이들 대기업에 이어 3위다.

신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제품인 '아이클레보 O5' 출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시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기업 중에선 (우리 회사가) 2위까지 올라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내에선 온라인시장 추가 공략, 해외에선 기존 30개국에서 50개국으로 판매지역을 늘려 당초 목표했던 '2023년 매출 3000억 원'에서 로봇청소기가 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는 국내 브랜드 가운데 수출비중이 32%에 이른다. 유진로봇 전체적으로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2016년엔 로봇청소기로 '이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8년 유진로봇의 전신인 유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O5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진로봇틱스를 창업한 신 회장은 2000년부터 로봇 개발에 전념해 축구 로봇, 군사용 작업로봇(롭헤즈), 유아교육용 로봇(아이로비), 청소 로봇(아이클레보), 물류 배송 로봇(고카트) 등 다양한 로봇을 연구·개발하며 국내 로봇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신 회장은 "2005년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를 처음 선보인 후 지금까지 수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산과 경쟁하며 수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제품은 기존의 강력한 흡입력에 AI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아이클레보 O5의 '강력한 흡입력'은 일반 무선청소기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유진로봇 관계자는 "흡입력과 함께 청소기는 잘 쓸어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아이클레보 O5는 V6블레이드와 콤팩트브러시를 통해 반려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 이 제품을 쓴다고 해도 한 달 전기료는 1000원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이클레보 O5가 직전 모델인 아이클레보 오메가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로봇청소기가 청소영역을 기억해 스스로 청소를 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청소도 가능하다. 흡입력, 소음, 청소패턴 등을 소비자가 선택해 수행하는 심야청소 모드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78만명 목숨 빼앗는 B형간염

유전자 재조합 치료제 상용화 될까

GC녹십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 재조합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GC1102(헤파빅-진)'의 만성 B형간염 치료 임상 2a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헤파빅-진'은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B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혈액(혈장)에서 분리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의약품이다. 이와 같은 의약품은 개발된 적이 없어서 '헤파빅-진'이 상용화되면 세계 첫

제품이 된다. GC녹십자는 '헤파빅-진'을 기존 혈장 유래 제품처럼 간이식 환자의 B형간염 재발을 예방하는 용도로 개발하면서 범위를 넓혀 만성 B형간염 치료에 대한 임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임상엔 만성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헤파빅-진'과 핵산 유도체 계열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B형간염 치료 극대화 방법을 찾는 연구로 분석된다.

GC녹십자 관계자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제와 항바이러스제와의 결합은 시도된 적이 없는 분야"라며 "헤파빅-진이 기존 혈장분리 제품보다 항체 순도가 높고 바이러스 중화 능력도 뛰어나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3억명에 달하고, 이들 중 상태가 악화돼 간경변 내지 간암으로 발전해 연간 78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경 기자

현대약품 미녹시딜에 비타민 더한 '탈모치료제' 출시

피지 분비 억제·항산화 효과

현대약품이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국내 최초 미녹시딜 복합제 '복합미녹시딜 5%'(사진)를 4일 출시했다.

'복합미녹시딜 5%'는 미녹시딜 성분으로 구성된 남성형 탈모치료제 '미녹시딜 5%'에 두피 트러블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B6 '피리독신염산염'과 비타민 E '토코페롤아세테이트' 등 비타민 성분 2종이 함유된 제품이다.

'피리독신염산염'은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해 지루성 피부염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토코페롤아세테이트'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두피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해준다.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 환자라면 피부염 치료 후 제품을 사용해야 했던 기존의 미녹시딜 제품과 달리, '복합미녹시딜 5%'는 지루성 피부염 환자라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두피 염증이나 가려움을 억제해 주는 'L-멘톨' 성분까지

함께 함유되어 있어 탈모환자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한다.

'복합미녹시딜 5%'는 60ml, 24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스프레이 타입의 용기로 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뿌려주면 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미녹시딜은 출시한 이후 국내 탈모환자들에게 꾸준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오며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역시 탈모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출시한 제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종근당 항암신약 '캄토벨' 유효·안전성 추가확인

종근당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WCLC 2018)에서 캄토테신계 항암제 신약 '캄토벨(사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한 비교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캄토벨은 우리나라의 8번째 신약이자 항암제로서는 3번째 신약으로, 2003년 10월 난소암과 소세포암의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2004년 발매됐다. 우수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현 빈도가 기존 약물 대비 현저히 낮은 우수한 약물이다.

종근당은 201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8년에 걸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기관에서 소세포폐암 재발 환자 164명을 대



상으로 캄토벨과 토포테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평가 하는 후기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했다.

임상 결과 캄토벨 투여군에서 1명의 완전 관해(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가 확인됐으며 객관적 반응율은 캄토벨이 36.33%로 토포테칸 21.05%와 비교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 캄토벨 투여군의 약물을 투여하고 전체 생존 기간은 396일로 토포테칸 247일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약 5개월 가량의 차이를 보이며 생존

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결과를 확인했다. 약물 투여 후 암이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등의 무진행 생존 역시 캄토벨 투여군 144일, 토포테칸 115일로 약 1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임상으로 종근당은 확장 임상시험의 조건부로 허가 받은 국내 항암제 신약 중 최초로 소세포폐암과 난소암 2개 적응증에 대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

유경하 이대목동병원 교수

줄기세포 분야 '성과 창출형 과제' 선정

유경하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2018년도 제3차 보건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실용화분야)의 성과 창출형 과제에 선정됐다.

'편도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응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효과 개선'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사업은 향후 1단계 연간 5억원(3년), 2단계 연간 5억원

(2년) 등 총 5년에 걸쳐 25억원의 연구비를 받게 된다.

유 교수가 연구 총괄 책임자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우수 연구자 지원사업인 이화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박주원 이화대 생화학학교실 교수, 비비에이치씨 산하연구소 STRI의 부소장 이상연 박사가 세부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다.

유 교수는 "편도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착생 능력과 면역 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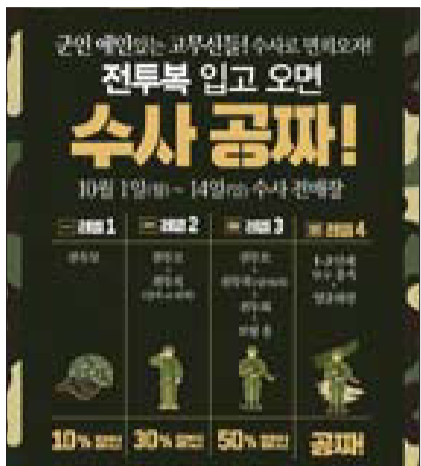


능력을 통해 이식 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합병증인 세균 감염과 출혈을 예방하고, 이식편대 숙주병은 억제하면서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군복 입고 얼굴에 위장하면 공짜?

무리한 이벤트 “군인들 속상해~”

유명 일식 체인점 ‘수사’ 할인행사
軍 “군인 배려보단 돈벌이로 인식”
군복 단속 법령 위반여부 확인 중



유명 일식 체인점이 국군을 날을 맞이해 내세운 마케팅 행사가 군과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스키 전문 체인점 'SOOSA(수사)'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자사 전매장에서 '전투복 입고 오면 공짜'라는 타이틀로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다.

4일 SOOSA 페이스북에 따르면 1레벨에서 4레벨까지 각 등급별로 지난 1일부터 군복착용자에 대한 차등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군인 애인을 둔 고무신(여자친구)들을 위한 배려라기 보다 군인을 돈벌이로 보고 있다는 게 군안위의 견해다.

행사 내용을 접한 한 휴가장병은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가 군복을 입고 얼굴에 위장크림을 받을지 의문”이라며 “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구경거리가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휘관으로 복무 중인 한 장교는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전투복 차림의 얼굴에 위장을 하는 것은 군 규정 위반소지가 있

다”면서 “S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군인에 대한 감사인지 아니면 가볍게 웃고 즐기는 블랙 마케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OOSA가 진행중인 할인 이벤트는 ▲전투모 착용시 10% 할인 ▲전투모와 전투복 상의 또는 하의 착용시 30% 할인 ▲전투모, 전투복 상하의, 전투화를 착용하고 모형총을 휴대 시 50% 할인 ▲1~3 단계를 모두 충족하고 얼굴위장 시 공짜 등 4레벨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군복 등 군용품에 대한 지식이 깊은 군사동호인(매니아)들도 SOOSA의 이벤트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군복 및 개인전투 장비를 연구하는 동호회의 한 관계자는 “SOOSA가 요구하는 조건들은 현행 군복 및 군장비 단속 법령과 모의총포법의 위반 여지가 있어, 자칫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행



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S사의 이벤트가 관련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이벤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OOSA 관계자는 “이번 할인 행사는 군을 희화화 의도는 없었지만, 세심히 짚어 보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향후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빈폴·구호 매장에 삼성 ‘에어드레서’ 배치

삼성물산 패션부문 프로모션 진행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출시와 함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대표 브랜드 갤럭시, 빈폴맨·레이디스, 구호, 르베이지 등 전국 주요 매장 50곳에 의류청정기 ‘에어드레서’를 설치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에어드레서’를 활용해 고급 소재 의류를 간편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선보인 ‘에어드레서’는 에어·스팀·드라이·청정의 4단계 전문 의류 청정 방식을 활용해 의류의 미세먼지와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과 삼성전자는 의류 소재와 품목 별로 최적의 관리 코스를 추천하는 ‘마이클로짓’ 서비스를 개발했고, ‘에어드레서’와 연동을 통해 고급 소재의 의류를 맞춤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앱을 다운 받고, 스마트싱스 앱에서 에어드레서를 연동하면 ‘마이클로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이클로짓’을 실행 후, 스마트폰으로 의류 라벨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의류 정보를 인식해 맞춤 케어 코스를 추천한다. 한 번 라벨을 스캔한 의류 정보는 자동으로 앱에 저장되기 때문에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앱에서 관리 코스, 사용 시간과 같은 관리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출시를 기념해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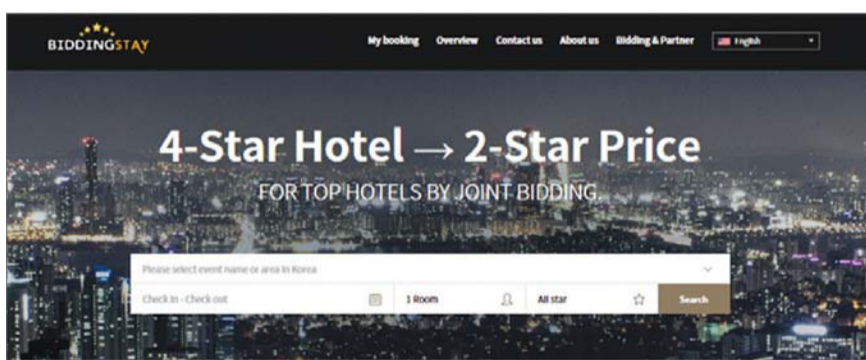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갤럭시, 빈폴맨·레이디스, 구호, 르베이지 등 주요 브랜드 매장에서 ‘에어드레서’를 경험하게 하고, 의류/액세서리 구매 고객이 ‘에어드레서’ 구입시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박미경 삼성물산 패션부문 소제담당은 “의류에 적용되는 소재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옷에 최적화된 의류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수년간 쌓아온 의류 소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마이클로짓’이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옷을 편리하게 관리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MICE 호텔도 ‘비딩스테이’서 비교·견적

호텔연회장 가격, 최대 20% 저렴
3성급 이상 국내호텔 751곳 참여



비딩스테이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

서울시는 마이스(MICE) 전용 호텔 비교 견적 사이트 ‘비딩스테이’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호텔 연회장의 가격을 비교해 약 20%까지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다. 비딩스테이는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개오디션’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팬텀글로벌의 아이디어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된 것으로 온라인 공동입찰 개념이 도입된 다국어 지원 호텔예약 사이트다.

MICE 주최자가 홈페이지에서 지역, 행사 기간, 객실 수 등을 작성해 객실·연회장 공동입찰을 신청하면 각 지역에 제휴된 호텔 담당자에게 이메일·문자로 입찰 참여 정보가 전송된다.

판매를 원하는 호텔이 3일 안에 견적

서를 제시하면 비딩스테이가 고객 요구에 맞는 BEST 3 상품을 추천해 마음에 드는 상품을 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비딩스테이에 참여한 국내 호텔은 총 751개로 모두 3성급 이상이다. 시는 온라인 공동입찰로 호텔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객실 연회장을 약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MICE 주최자들이 4성급의 호텔을 2성급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회의(UIA 기준)는 총 688개로 하루 평균 약 2개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김태명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관광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KGC인삼공사 여성 위한 ‘마인드 퍼퓸머’ 4종 출시

KGC인삼공사의 20대 여성 케어 전문 브랜드 ‘원스인어문’이 ‘마인드 퍼퓸머’ 4종(월렛싱·리프레쉬·에너지이징·밸런싱)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마인드 퍼퓸머(80ml)’는 그날의 향에 민감한 여성의 불편사항에 초점을 맞춰 세련되고 풍부한 향을 지닌 미스트 타입 향수로, 피부와 속옷 등에도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월렛싱’은 천연 허브 성분이 담겨있어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며, ‘리프레쉬’는 섬세한 플로럴 계열의 향이 무기력해지고 저하된 기분에 생기를 북돋아준다. ‘에너지이징’은 활기찬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우울한 기분에 에너지와 상쾌함을 더해주며, ‘밸런싱’은 그린티 추출물이 변화되는 감정기복을 편안하게 완하시켜준다. ‘원스인어문’은 한 달을 주기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는 여성의 ‘균형과 흔들



림’에 주목하며, 그 날의 불편사항을 겪는 여성을 케어해주는 컨셉트 브랜드로 전국 ‘탈라블라(구 왓슨스)’ 매장 및 원스인어문, 정물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원스인어문’은 최근 한 달 매출이 출시 초기 한 달 대비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탈라블라’의 효자상품으로 등극한 바 있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강남페스티벌 ‘별마당 패션쇼’ 개최

지난 3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강남페스티벌 별마당패션쇼’에서 KYE(카이) 계한희 디자이너의 의상을 착용한 모델들이 워킹을 선보이고 있다. /연철뉴스

김가네 복합물류센터 남양주에 확장 오픈

김가네가 종합외식기업으로써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가네는 기존 서울 물류센터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복합물류센터를 완공, 테스트 시범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합물류센터는 김가네의 유통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전략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무엇보다 최신 물류자동화 설비를 구비해 가맹점이 보다 원활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새로 문을 연 복합물류센터의 생산동은 고압 볶음솥, 진공 냉각기 등 신규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김가네는 이번 설비 구비를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150년 전통을 보유한 일본의 식품

생산기기 제조업체인 시나가와로부터 들여왔다.

증기를 이용한 고압 볶음솥은 기존 방식 대비 작업시간을 50% 이상 줄이게 됐으며, 김밥용 식재료뿐만 아니라, 탕, 볶음류 등 다양한 메뉴의 조리가 가능해졌다. 진공 냉각기는 온도 90도의 뜨거운 제품을 15분 내에 10도까지 냉각시켜, 제품 조리, 냉각, 포장까지 1시간 내 제품을 완성할 수 있다. 향후 외식기업으로써의 생산제품 다양화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물류동의 경우, 물류 작업의 자동화를 강화할 수 있는 DPS/DAS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 전 가맹점 직배송 운영을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박민용 기자



표정있는가구 — **에몬스**
www.emons.co.kr

3관왕 기념 SALE

30~10%

10.1(월) > 10.31(수)까지 전국 에몬스 매장

에몬스 품질/브랜드/웰빙 3관왕 달성

- 1.  6만 2600여명의 소비자 및 전문가가 선정
7년연속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 2.  110만 600여명의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
2년연속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

- 3.  7만 5200여명의 이용 경험 소비자 대상으로 조사
201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마음까지 편안하다. 에몬스



에몬스가구
전속모델 전도연

 **에몬스가구**

문의전화 1800-9977

*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홈페이지(www.emons.co.kr)를 참조하세요.

전남~제주 해저터널 재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주목'

제주 입도객 많아져 B/C 상향 가능성
공항 보완책으로 고속철 필요성 강조

수면아래로 잠복했던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재추진 가능성이 논의됐다.

민주평화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일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와 올



해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총리인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면서 "그 문제를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제주 해저터널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도의 요구로 지난 2011년 해저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경제성(비용대비 편익·B/C)이 낮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시 한국교통연구원 실사한 타당성조사 결과는 B/C(비용대비 편익비율)이 0.71~0.78로 기준치 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B/C 상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제주도 연간 입도객(관광객)이 1300만명이 넘어서면 전남~제주 해저터널의 B/C가 기준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데 최근 제주도 입도객이 1500만명 시대를 열어 이 사업의 B/C 상향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제주가 제2 공항 건설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폭설, 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 대안 등으로 고속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 효과 등을 설파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제주가 현재 제2공항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으로 전남~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관광객 수 등의 여건을 감안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0월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지만 제주 도민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해 8월 이후 중단했다.

전남-제주 고속철도는 목포-해남(66km)은 지상, 해남-보길도(28km)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km)는 해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총연장 167km에 사업 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완도군, 대기오염 실시간 측정망 구축 완료

내년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자료 제공

완도군은 4일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측정망은 관련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신지면사무소 부근 농어민 건강증진센터 건물 옥상에 세웠다.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부터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완도군은 측정망이 없어 인근 지자체의 관측 정보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질산가스, 일산화탄소,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10종의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우철 군수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및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군민의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변화 종합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이제진 기자 wando1106@

함평군, 관급공사 때 지역민·업체 우대

전남 함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관급공사 시 지역민·지역업체 우대카드를 꺼내들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운행 군수는 직접 주재한 1일 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에 놓고 있는 중장비 등이 너무 많다"며, "일 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부회의 종료 후, 이 군수는 즉시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현장에 지역민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고용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의 훈시를 발령했다.

또 4일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하도급 계약 시 지역 업체가 100분의 7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내용과 읍·면이 발주하는 작은 사업이라도 관내 업체의 장비와 생산품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공문도 보내 지역민과 지역업체를 우대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이 군수는 "지역민과 지역업체를 우대할 다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함평군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함평=양수영 기자 ysn6313@

민선 7기 '민생·동행·혁신' 미래 기반 구축

광주시 문인 복구청장 공약사업
사업 실현 위해 2871억 투입 계획
도시재생·도로개설 등 10개 사업

광주시 북구가 주민 행복을 이끌고 북구 발전의 기틀을 다질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주민 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실현을 위해 북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로드맵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4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공약이행평가단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면밀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민선 7기 공약을 확정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활력있는 민생경제 ▲매력적인 도시재생 ▲행복나눔 동행복지 ▲어우러진 생활문화 ▲주민참여 혁신행정 등 5대 구정방침과 38개 정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국비 1100억원, 시비 1021억원, 구비 등 750억원 총 2871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북



문인 광주시 복구청장.

구는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산업현장 경제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산업단지 시설개선 및 청년친화형 사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컨설팅 시스템 구축, 청년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매력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주민 주도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활성화, 신안교~광천1교간 도로개설,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광주 슬로몬 파크 건립 등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행복나눔 동행복지 분야는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실버 job사업단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여성행복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우러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등산 시가문화권 관광벨트 조성, 중의공원 문화예술벨트 조성, 광주비엔날레 활성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이 확정됐다.

주민참여 혁신행정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커뮤니티센터 건립, 청년 참여예산 운영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북구발전과 구민편의 증진 기여도가 높은 과제를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44만 북구민과 맺은 중요한 약속이자 북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다"며 "이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봉태영 기자 bcy2020@

인천북구도서관

청렴도서 전시회 개최

인천북구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공공도서관의 책을 활용해 인천시민 및 직원들의 청렴의식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도서 40여권을 선정해 오는 19일까지 '청렴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뇌물의 역사', '리더의 승패는 청렴이다' 등 청렴도서 40여권을 북구도서관 신관 로비 1층에 전시해 시민 및 학생들이 청렴에 대해 접근하기 쉽고, 책 속 인물들의 청렴사례를 교훈삼아 깨끗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다.

또한 직원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인 청탁 사례와 청탁금지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평소 직원들이 궁금해 하고 헛갈리기 쉬운 상황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복지 부정수급 근절 위한 예방교육 실시

광주 서구 공무원·주민 등 대상

광주 서구가 복지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주민,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나섰다.

복지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 예산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신뢰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추세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에 서구는 지난 8월과 9월에도 공무원, 시설장, 주민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정수급 예방교육.

또한, 구청홈페이지에 '복지부정수급자를 신고해주세요'라는 팝업을 게재하고 배너를 설치해 서구주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 받는다.

광주 서구=봉태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 해질 18:10

10월 5일 (금)
음력 : 8월 26일

수도권 날씨 **16~2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남권 호전·동북권 악화...가전 많이 사고 커피 줄이고

8월 서울 시민 소비경기지수 호전

소비경기지수 전년비 1.8% 증가
서남권 소비 3% 늘어, 서울 1위
숙박업 오름세... 여관업도 '쑥'

올해 8월 서울 소비경기지수가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업의 소비증가로 9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4일 '2018년 8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 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은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 주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증가했다.

특히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가 1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달에 이어 종합소매업과 무점포소매의 소비증가도 지속됐다. 종합소매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에서 소비가 증가했지만, 독립슈퍼·잡화점업의 소비가 줄었다. 무점포소매는 인터넷 쇼핑이 견인했다.

숙박업은 올해 들어 최고의 오름폭(17.9%)을 보였으나 음식점업과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세가 지속돼 숙박·음식점업은 0.7% 증가에 그쳤다. 이달 숙박업의 소비증가는 호텔업뿐만 아니라 여관업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

징이다.

지역별로는 서남권의 소비증가가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권, 동남권 순으로 경기호조를 보였다. 반면, 동북권과 서북권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해 지난달에 이어 서울시 권역 중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가전제품·정보통신, 문화·오락·여가 소비가 강세를 보여 소매업(4.4%)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도심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증가하며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과 무점포소매 소비가 부진했지만, 종합소매업, 가전제품·정보통신 소비 증가로 감소폭이 줄었다.

동남권은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

다.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의 높은 증가세에도 가전제품·정보통신, 음식료품·담배의 소비침체로 소매업 오름폭이 축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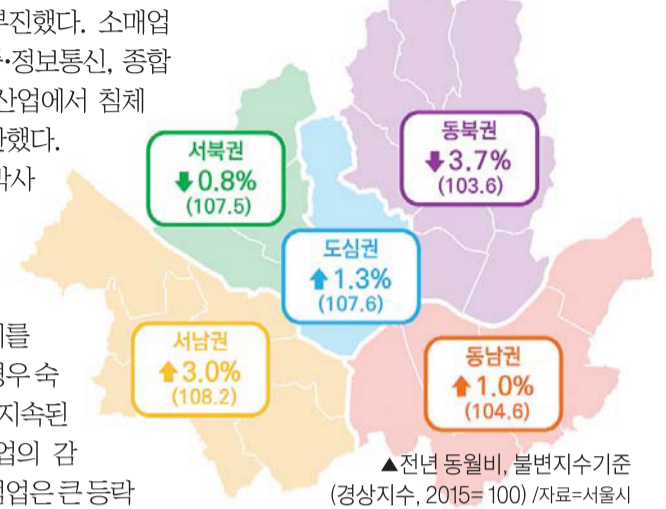
동북권 소비경기지수는 3.7% 감소해 서울시 권역 중 가장 부진했다. 소매업(4.4% 감소)은 가전제품·정보통신, 종합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침체를 보이며 감소세로 전환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소비경기는 최근 3개월간 약 1% 후반대의 양호한 오름폭을 보였다"며 "동일기간 보험세를 보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숙박업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 반면, 주점·커피전문점업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음식점업은 큰 등락

없이 보험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8월 권역별 소비경기지수 및 전년동월대비)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편의점 적발 현장 /경기도청

청소년 불법고용·술 판매 업체 16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개 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불법고용 2개소, 청소년 불법 출입 3개소, 술 판매 3개소, 담배 판매 7개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이들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불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판매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

서울시, 블록체인 강국 스위스와 교류협력 물꼬

(취리히)

서울시-취리히주 우호도시협약 전자정부·과학 기술혁신·관광 등

서울시가 블록체인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스위스 취리히주와 우호도시협정을 맺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토마스 하이니거 주지사와 만나 '서울시-취리히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취리히주는 스위스 북부 최대의 상업·금융 중심지로 인구는 115만8000명이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으로 전자정부, 과학 기술 혁신, 문화, 관광 분야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됐다.

박 시장과 토마스 하이니거 주지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모두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박 시장은 취리히 첫 여성 시장인 코린 마우흐 시장과 면담했다. 두 시장은 도시재생, 스타트업 활성화, 스마트 도시정책 분야 등 다양한 도시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3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의 블록체인 센터 '트러스트 스퀘어'를 찾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남뉴스

면담에서 마우흐 취리히 시장은 내년 9월 서울에서 양 도시 주최로 처음 열리는 '취리히 서울과 만나다' 행사에서 서울시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시장은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취리히시 소재 블록체인센터인 '트러스트 스퀘어'를 방문해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고 서울시 블록체인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취리히주 간 우호도시협정 체결을 통해 블록체인 강국 취리히와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블록체인 선도도시로 비상을 준비 중인 만큼 취리히주와 정책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가짜 앰블런스 운행 단속 팔 건었다

경기도 사설구급차 업체 실태 조사

응급의료 법률 위반 등 9곳 덜미

응급환자 이송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의 운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 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9월 14일 열렸던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서울시 도서관 등 공공시설 10곳 비상용 무료 생리대 비치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자판기(사진)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용 생리대자판기가 설치되는 장소는 ▲광진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서울도서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여성플라자 ▲중부여성발전센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쪽방촌 등에 '보이는 소화기' 1만대 추가 설치

서울시 재산 피해 경감효과 높아

서울시가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1만대를 추가 설치한다. 보이는 소화기는 좁은 골목길, 쪽방촌,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누구든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담장, 거리에 설치한 공용 소화기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만184대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 64건의 화재를 초기진압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는 소화기는 투입예산 대비 재산 피해 경감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6억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신속한 소화에 따른 피해 경감액은 38억 2200만원에 달했다.

시는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 단계 진화한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 1만대를 추가 도입한다. 거리형 보이는 소화기는 도심 노점상 밀집지역, 소규모 점포 밀



보이는 소화기 활용 사례. /서울시

집지역, 다중이 운집하는 공공장소, 고시원·학원 밀집지역 등의 거리에 설치된다. 아울러 시 소방재난본부는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말형 소화기는 장기간 보관 시 소화약제가 굳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10년 이상 된 소화기도 교체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금융] 윤대희 신보 이사장 취임 100일 “유니콘 기업으로” 04



Life

[유통] 옥상의 변신은 무죄
홈플러스 루프에
벼룩시장 선다
니

보부상마켓

핫 셀러 마켓
대구 상륙
2018. 10.12(금) - 10.13(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대구점 내 7층 옥상 주차장
신착순 할인권 증정
3,000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지켜온 목건강 가래·기침·미세먼지로부터 해방! 국민 의약품 반세기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보령제약 '용각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카피로 유명한 용각산이 지난해 발매 50년을 맞았다. 용각산은 기침, 가래, 인후의 염증에 의한 통증, 붓기, 불쾌감, 목쉼 등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전통의 가래·기침해소제다.

용각산은 미세분말 제형으로 1967년 6월 26일 첫 발매된 이후 지금까지 7800만 갑 넘게 판매된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의약품이다. 50년간 판매된 용각산은 (제품의 케이스 직경 5.5cm, 25g 기준)을 일렬로 늘어뜨리면 그 길이가 총 4290km로 한반도 남북(1000km)을 두 번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 내용물의 무게만도 약 1950t에 이른다.

◆생약성분 용각산

용각산이 약품으로 제조된 것은 18세기 중엽. 당시 일본에 갓 들어온 서양의학이 전통적인 약효와 접목되면서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길경가루, 세네가, 행인, 감초의 식물성 생약에서 추출된 주성분은 별다른 무리 없이 기관지와 목의 정화작용을 보조하고, 호흡이나 발생에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빠른 효과와 온화한 약리(藥理) 작용으로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본 류카큐산(龍角散)과 기술제휴를 맺은 당시 보령제약은 설립초기였다. 류카큐산은 생산설비 현황, 기술 도입 후 신규로 설치할 설비, 그리고 그 같은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보령에 요구를 해왔다. 당시 김승호사장은 막 계약을 마친 후 허허벌판의 성수동 공장부지로 류카큐산 중역진을 데려가 그곳에서 펼쳐질 보령제약의 미래를 설명, 설득하며 계약을 성공시켰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현재 용각산의 미세분말을 만드는 기술은 용각산 원조인 일본 류카큐산 외에 전세계에서 보령제약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김승호 회장(왼쪽 두번째)이 기술제휴 계약체결을 위해 방문한 일본 류카큐산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1960년대 말 용각산 광고. /보령제약

日 류카큐산과 기술제휴 맺어 1967년 전통 기침해소제 첫 선

약효 알리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 특징 살린 명카피로 광고사 회사

70년대 중동 해외근로자 필수품 미세먼지 자극받은 목 자정 작용

고 있다.

어려운 협상 끝에 발매된 용각산은 더 큰 산을 넘어야 했다. 1967년 6월 26일, 용각산 5만갑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용각산은 전혀 팔리지 않았다. ‘일본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구설수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장상태였다. 당시 일본보다 떨어지는 용기제작 기술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용각산의 효능을 확인했던 당시 김승호 사장은 첫 출하물량 5만갑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고, 일본 원제품과 똑같은 수준의 새로운 용기와 포장으로 제품을 다시 만들어 영업사원들과 함께 소비자를 직접 찾아 거리를 누볐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제품을 다시 만든 이후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서 약효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광고가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용각산에 투입된 광고비는 단일 품목으로는 국내 최고수준이었다. 출시 이듬해인 1968년에는 전체 매출(9442만원)의 32%(3056만원)을 광고에 투자했으며 몇 년간 계속 30% 내외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당시 광고시장을 주도하던 제약사들이 광고비에 투자한 비용은

대략 매출의 10~15%였다. 신생기업이 그들의 두 배를 광고에 쏟아 부으니 사람들은 모두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각산은 미세분말 제형의 특징을 살린 “이 소리가 아닙니다.”로 시작하는 명카피로 오늘날 보령제약을 있게 한 대표제품이 됐다. 1973년부터 TV전과를 타기 시작해 20여년 계속된 이카피의 광고는 용각산을 국민적 사랑을 받는 의약품으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제약업계뿐 광고사(史)에서도 길이 남는 명광고, 명카피로 회자되고 있다.

◆해외 근로자의 필수품

1970년대 말, 보령제약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온 우편물이 가득했다. 용각산을 중동지역으로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모래 바람에 현지 근로자들에게 용각산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현지 의약품 수입절차로 국산 의약품의 수출이 어려워 현지 근로자들은 용각산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의 상황은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졌을 정도. 이에 보령제약은 용각산을 수시로 위문품으로 보내며 현지 근로자들의 어려움에 동참했다. 모래바람 속에서 땀 흘리던 우리 근로자, 그 곁에 용각산이 함께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근로자들에게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용각산은 목건강 관리를 위한 필수품이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용각산은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용각산 패밀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용각산은 변화를 맞는다.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라는 환경변화와 젊은층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보령제약은 2001년 미세한 분말을 손가락

으로 떠먹어야 했던 점과 생약성분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확산시키기 쉽지 않았던 ‘용각산’을 개선한 ‘용각산쿨’을 발매했다. 용각산쿨은 스틱에 들어 있는 과립형 제제로 1회용 포장으로 만들어 복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맛도 개선했다. 순수 생약성분의 주성분들은 기관지 내부에서 점액의 분비를 높이고 섬모운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자극 받은 목의 자정작용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다.

용각산쿨 과립은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해 기도 점액인 뮤신(mucin) 분비를 증가시킨다. 뮤신은 목에 있는 가래를 용해시킬 뿐 아니라, 유효역 역할을 하며 목에 분포한 약 6억개의 섬모의 운동을 촉진시킨다. 섬모운동이 활성화되면 물러진 가래 등 이물질들을 외부로 빠르게 배출시키게 되어 목의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가래와 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기침이 진정되게 된다.

용각산쿨을 복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없이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용각산쿨은 목 점막에 직접 작용하는 약으로 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희석이 될 뿐 아니라, 위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각산 패밀리 브랜드로 목사랑 캔디도 있다. 목사랑 캔디는 허브향과 매실향 두 가지 맛으로 목에 좋은 ‘19가지 천연허브향’이 배합되어 있다. 매실향은 허브추출물과 매실추출물, 구연산 등이 함유되어 목안 깊숙한 곳까지 상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시원한 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다. 흡연, 감기, 황사로 인한 목의 불쾌감 완화와 구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용각산 변천사



자료/보령제약